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8 1983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 1102 1103 1983년 4월 8일(금) 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April 8 & 9,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부녀회장 후계자 물색

교민최초의 여성단체 대한부녀회 와해위기

양혜신회장 사임표명… 부회장은 공석

교민사회 최초의 여성권익단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4월10일 "이민여성들의 문제해결을 도와 캐나다사회에 적응케 하며 교민 복지및 지위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창립된 캐나다 대한부녀회는 지난 1년간 별 업적없이 지내오다 최근 사임의 뜻을 표한 양혜신 회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아 사실상 와해의 위기에 있다.

양회장의 임기는 84년4월까지 2년이나 신병과 언어장벽등을 이유로 최근 사임의 뜻을 표했다.

양회장이 주장하는 언어장벽이란 자체 운영자금이 거의 없는 부녀회가 연방정부의 그랜트(grant)를 얻기 위한 절차가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해 회장을 비롯한 현임원진이 모두 언어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35명이 회원으로 등록돼있는 부녀회의 조직은 부회장 공석이고, 총무에 조정자씨

김옥자, 오정자, 김경희, 이영옥, 이칠영, 이상온씨등이 임원으로 돼있으나 책임부서도 확정된 것이 없고 정기모임같은 것도 없어 사실상 활동이 끊어진 셈이다.

박옥선씨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자문위원이 있긴 하나 자문위원제도도 거의 형식적인 것일뿐,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자문위원들도 부녀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말이다.

자문위원은 김인자, 이신복, 박영숙, 유회자, 오우현, 왕연순, 강신봉, 배현도, 전택균, 장영채씨 등이다.

양회장은 5일 "아무도 회장을 맡으려 들지를 않는다. 물론 총회를 소집, 회장을 선출하면 되지만 이런 상태로는 총회조차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녀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신병, 언어장벽이 아니라 회원들 자신이 여성단체 존재, 나아가서는 여성권익옹호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데서 출발한다.

부녀회가 지금까지 1년간 해온 행사로는 자선바자회, 양로원 방문등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관계된 행사는 하나도 없다시피 했다. "지금까지 부녀회를 이끌어간 운영진이 부녀회의 발족취지를 투철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한 교민여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출발됐던 교민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위한 단체가 출발한지 1년만에 사라져 버린다면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능력과 관심있는 여성들이 대를 이어 부녀회를 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모국에서도 한국여성 자원개발원이 5월중 발족예정이며, 그 초대원장으로는 최근 토론토를 방문했던 이대 여성연구소장 김영정교수가 내정되었다.

◆미스코리아 후보 제6호 오미숙양.

1983 후보제6호 오미숙양

현모양처를 희망한다는 네째딸

미스·코리아 후보 제6호는 현모양처를 희망한다는 오미숙양.

오양은 1남4녀중 넷째로 동덕여대 식품영양과 3년 재학중 지난 82년 이민왔으며 현재 칼리지 진학을 위해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60년 서울출생이며 취미는 음악감상, 가보고 싶은 나라는 스위스, 좋아하는 꽃은 백합이라고.

165Cm의 키에 체중 48Kg이다.

영어모르는 교민 선거장서 봉변

보수당대의원 선거에서…『토론토·선』보도

토론토·선지는 6일밤 거행된 스카보로 웨스트지구 연방보수당 대의원 선출대회에 약 40명의 한국계 신입당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중 10명은 영어를 할줄 몰랐다고 비꼬아 보도했다.

동지는 이들 한국인들이 대회 뒷좌석에 앉아 있다 투표가 끝나자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지적하고 보수당 연방대의원 선출위원회 회장 패트·아담즈씨의 말을 인용, "이것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희극"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클·윌슨 당수 후보를 지지하는 아담즈씨는 한국인 당원들이 "보수당에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밤 한국인 당원들을 동원한 돈·빌리·이스트지역 대의원 후보 홍중표씨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당원이 못되던가 투표권을 못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새 이민자들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정치에 참가할 수도 없는 2등시민이란 말인가"고 반박했다.

조·클라 지지파인 홍씨의 노력과 40여 한국인의 지원에도 불구, 반 클락계 1명과 특정후보를 지지치 않는 2명의 대의원이 이날밤 당선됐다.

한편 어퍼·캐나다·로·소사이어티의 대변인인 마샬·두케이시 변호사는 "에트닉 배경 혹은 새 이민자라고 해서 정치활동 참가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논평했다.

박광철씨 1,000달러희사

조영사 『포니』전달식에서

◆박광철씨

지난 「실협의 밤」 행사의 경품추첨에서 1등상인 「포니」승용차를 탄 한인회부이사장인 박광철씨와 부인 박경희 여사는 6일 한인회에 회관건립기금으로 현금 1,000달러를 희사했다.

박씨부부의 기금은 이날 저녁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있은 토론토 총영사관 조홍래영사 부부의 「포니」승용차 기증식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되었다. [illegible]

조영사와 부인 박정옥 여사는 3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협의 밤」에서 특등상으로 받은 「포니」승용차를 한인사회를 위해 "조건없이" 기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훈 총영사등 영사관 직원과 한인회 임원들이 배석한 이날 전달식에서 장순채 한인회장은 "한인회 책임자로서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4%		7.25%
90일	8.4%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美軍면세품 密賣 駐韓美軍중령

5년重勞動을 선고

軍事재판서 3萬弗 벌금형에 불명예제대 조치도

〈서울-UPI〉암시장에 미군면세품등을 밀매하던 주한미군소속 엘빈·크레일딕 육군중령이 미군사재판에서 5년중노동과 3만달러의 벌금형을 4일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선고에 따라 27년간의 군복무에서 불명예제대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미국법무관은 밝혔다.

크레일릭중령은 지난 80년7월 주한미군에 전출된 후 미국에서 갖고온 이사화물과 비디오테이프, 골프세트, 텔레비전, 전기커피포트, 다리미등 컴미서리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암시장에 밀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를 주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개발원정식회의에서 파트타임부서제공이 확정되면 4월중순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전국 주택가격

1년전보다 내림세

4일발표된 로열·트러스트 부동산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캐나다 전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1년전보다 상당히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독채단층(Detached Bunglow)이 3.2%, 2층 독채가 4.9%, 콘도미늄이 9.5%, 호화 콘도미늄이 15.2%, 타운하우스가 4.5%, 호화 타운하우스가 12.1%씩 각각 떨어졌다.

무바랙 埃대통령

北韓 방문

〈동경-UPI〉 이집트의 하스니·무바랙대통령이 아시아순방길에 북한을 방문했다.

무바랙대통령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만났다.

무바랙대통령은 5일 일본에 도착했다.

佛, 蘇聯人40명추방

군사분야 간첩행위 혐의로

〈파리-AP〉 프랑스사회당정부는 5일 약40여명의 소련인들을 [illegible] 에서 조직적인 [illegible] 한 혐의로 추방했다고 [illegible] 무성이 발표했다.

내무성은 이들 소련요원들은 외교관과 비외교관들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뉴스통신은 이날 47명의 소련외교관들과 언론인들이 추방됐으며 이숫자는 프랑스가 지금까지 동구인들을 간첩혐의로 추방한것중 최대규모라고 보도했다.

이 [illegible] 파리에 도착한 [illegible]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다.

한편 소련대사관은 이들 소련인들의 간첩혐의내용을 부인하면서 소련인추방을 미테랑사회당정부의 정치적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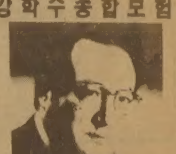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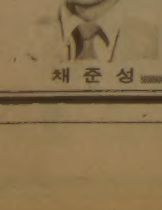
YOUNG I. HYUN C.A.
카나다공인회계사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오메가시계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허소지업체
45 % ~ 50 %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세방 업무안내
IATA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 승 빈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 니 펙(이영호)204-667-8129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1983년도 춘계
남녀배구대회
◆종 목 : 남자대표, 남자 O.B.
(30세이상 구성)
여자대표, 여자 O.B.
(25세이상 구성)
★일 시 : 1983년 4월23일(토) 오전9시
★장 소 : West Humber Collegiat Institute
1675 Martin Grove
◆신청및문의처 : 923-3846 문영환
755-9925 임승철
755-0308 정기섭
◆참가비 : 균일 $60.-
(주장회의시까지 납부)
◆신청마감 : 4월21일(목) 주장회의
◆주장회의일시 : 1983년4월21일(목)
오후 7시30분
장소 : 브램든운동구점
337 Bloor St. W.
토론토 한인배구협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퀸스웨이×이스링튼)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M5S 1A5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5S 1A5

노년회, 영어학교 개설

1주에2회…수강료무료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는 지난해 1월부터 돈밀지역에 있는 그레노블국민학교(9 Grenoble Dr.소재)에서 한인을 위한 「영어학교」를 열고 1주에 2회(화, 목요일 오후 6:00-8:00) 기초반과 초급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반에 약 15명씩 수강해서 성과를 거두어 왔는데 83년에 들어와 수강생들의 출석율이 저조해 기초반이 중지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 상태로는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년회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 기초반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영어학교의 수강료는 무료이다. 따라서 학교측은 영어를 알기 원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강을 받아 유익한 과정이 되어주기를 강조했다.

교사진도 한국인으로 짜여있는 만큼 분위기도 자유스럽다.

현재 지도교사로는 김홍섭씨가 수고하고 있다. 알파벳으로부터 쓰기, 읽기, 생활용어, 직장면접회화등에 이르기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자세한 문의는 755-8079로 하면 된다.

◆한인 「영어학교」 초급반 학생들.

캐네디언 여성 15%

성적괴로움 당해… 인권위원회 통계

약120만명의 캐네디언 여성과 30만 캐네디언 남성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당해왔음이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통계에서 드러났다.

이 숫자는 캐나다 여성의 15%와 캐나다 남성의 4%가 스스로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것을 뜻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란 곁눈질, 언짢은 언사, 농담, 옷차림이나 체격, 연령, 결혼상태에 관한 야유, 상대를 얕보는듯한 지나친 친절과 꼬집기, 때리기 혹은 신체적공격등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등이 포함된다.

이 통계는 또한 150만명의 여성과 95만명의 남성등 캐나다인의 41%가 직장이나 서비스지역에서 원치않은 성적 관심을 받은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원치않은 성적 관심」(Unwanted Sexual Attention)은 육체적 접촉, 섹스와 관련된 언사, 은근한 성적압력, 붙잡기, 꼬집기, 개인적 관계나 섹스를 요구하는 계속되는 압력및 섹스강요등이 포함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연구는 이 조사결과 직장에서 분명한 행동강령을 수립, 종업원이나 매니저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함으로써 개개인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승격움직임

-욕·보로-

스카보로에 이어 욕·보로도 시로 승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욕·보로 의회는 5일 욕·보로탄생 19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1일을 기해 시로 승격할 것을 온타리오주 정부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욕의 시승격을 극구 주장하는 워드 2(Ward 2) 시의원 마이크·콜씨는 "오샤와·피터보로도 시이며, 심지어 사나(Sarnia)까지 시이다. 스카보로가 시로 승격되고 싶다면 욕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스카보로 시장 거스·해리스씨는 오는 6월29일 스카보로·시빅·센터 창립10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시승격식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金聖鍾作

<207>

헤로인 ②

金庫열자 그녀는 두봉에게 총구를…

그녀는 두봉이 준 열쇠 꾸러미를 흔들어 보였다.

『이게 없으면 절대 열 수 없어요. 넘버만 알아가지고는 열수 없어요.』

『빨리 열어봐요.』

그녀는 먼저 코트를 벗었다. 안에는 빨간 털셔츠 차림이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손을 마주 비비더니 오른손을 다이얼에 가져갔다.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것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봉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어느 새 그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돌었다. 두봉을 한번 바라보고나서 열쇠구멍에다 열쇠를 꽂았다. 열쇠 가 가볍게 돌아갔다. 그녀는 두 손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았다.

『끝났어요. 당신이 열어보세요.』

그녀는 일어서서 뒤로물러섰다. 얼굴이 굳어있었다.

두봉은 금고 앞에 다가섰다. 허리를 구부렸다. 손잡이를 잡았다.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는다. 비틀면서 잡아당겼다. 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안에 가방이 두개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알루미늄으로 겉을 입힌 장방형의 가방이었다.

『이건가?』

하면서 그는 가방에 손을 가져갔다.

『손대지 말아요.』

뒤에서 낮으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가 어느새 피스톨을 움켜들고 있었다. 총구가 정확히 그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치도 빈틈을 허용치 않고 있었다.

『왜 그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의외로 침착했다.

『손을 들어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

『나를 죽이겠다는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일수 밖에…. 여자라고 깔보지 마. 난 사람을 죽여봤어.』

『이걸 혼자 차지하겠다는건가? 혼자서 어떻게 이걸 처분하려고 그러지?』

『혼자가 아니야.』

갑자기 낯선 사나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고수머리에 이마에 흉터가 있는 조그만 사내였다.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가 일본말로 뭐라고 지껄였다. 일본인이 틀림없었다. 여자도 일본말로 말했다.

두봉은 일본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는 긴장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해치워 살려두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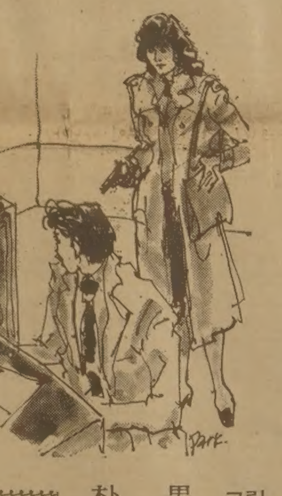
일본인이 여자에게 지시했다.

『총소리가 날텐데.』

여자가 주저했다.

『칼로 해치우지.』

일본인이 칼을 뽑아들었다. 칼날이 튀어나오면서 빛을 뿜는 순간 두봉은 사내에게 돌격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솟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머리로 상대의 가슴을 들이받자 일본인은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여자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지만 두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출입구쪽으로 달려갔다.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잠긴 문을 열려는 순간 일인이 뒤에서 그를 덮쳤다.



朴男 그림

보수당 지지율 50%

최근 갤럽조사…자유당 30%, 신민당 17%

당장 총선이 실시된다면 캐나다 국민 두명중의 1명이 보수당에 지지표를 던질 것이며 30%가 자유당을 지지할 것임이 7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신민당(NDP) 지지율은 17%였다.

지난 2월중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45%의 지지율을 획득했었다.

현재 지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보수당이 차기집권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사상최대로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브리티쉬·콜럼비아주의 캠룹스에서 있는 대의원 선출에서 후보등록 마감직전에 253명의 새당원을 동원, 2명의 암웨이(Amway)세일즈맨이 무난히 대의원에 당선된데 대해 일부 보수당원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존·크로스비 연방당수후보는 "암웨이 세일즈맨은 시민권자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불경기일수록 교회찾아"

각 종교단체 주장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생활에 타격이 클수록 시민들은 교회를 찾는 경향이 크다고 5일 메트로토론토의 로마·카톨릭교회측이 밝혔다.

지난주 수난주간과 부활주일의 경우 예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했으며 주요 타교파교회에도 대단히 많은 참예자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카톨릭 교구의 대변인 브랜·매스만 신부는 많은 교회가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찾고 서서도 모자라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타나는 일이지만 한편 신앙적으로도 환원되고 있는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베스숄롬회당(Synagogue)의 데빗 몬손 랍비(선생)도 평소보다 많은 관심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는 종교에 대해 더이상 방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앵글리칸 교회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센트·제임스교회의 제임스 맥퀴사제도 "많은 교인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강단을 둘러싸고 예배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곤경에 처해있을수록 더 위로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어한다"고 풀이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후나양 亡命허가 中共서 對美비난

(북경=UPI)중공은 5일 테니스 선수 후·나양(19)에 대한 미국의 망명허가 결정은 미-중공관계를 해치고 『상호교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 주재 중공대사는 국무성에 전달된 항의각서에서 법무성이 발표한 허가결정에 대하여 미국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테니스대회 도중 망명을 요청했던 후·나양에 대해 중공당국은 귀환할 것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 했었다.

어린이를 위한 특별프로

— 온타리오·사이언스센타 —

오스콧트·클럽(OSCOTT CLUB: 온타리오 사이언스센타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8세이상 14세에 이르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갖는다.

8세~11세를 위한 프로젝트

▲과학의 소개(Introduction to Science): 4월 16일-5월 14일 매토요일 오전.

▲과학실습(Science Workshop): 4월16일-5월14일 매토요일오전.

▲조형(Sculptural Forms): 5월21일-6월18일 매토요일 오전.

12세-14세를 위한 프로젝트

▲조형(Sculptural Forms): 5월21일-6월18일 매토요일 오후.

▲콤퓨터(Computer programs): 매일 오후4:30-6:00

▲콤퓨터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s): 4월11일-15일, 기본(Basic): 4월 18일-22일

승급지도(Advanced pilot): 4월25일-29일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전화 429-4100 교환(EXT)269, Education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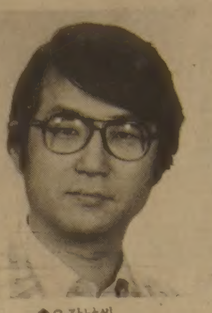
사이언스센타는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열며 입장료는 12세이하의 어린이는 $1, 13세-17세는 $2, 성인은 $3, 노인은 무료이다.

주소는 770 Don Mills Rd, Don Mills, Ont.이다.

〈현대적 속담풀이〉

「취중에 진담」

오 강 남 박사(종교학)



◆오강남씨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말, 뭐 끝이 듣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속담은 오히려 술에 취했을 때 진짜 말이 나온다고 하니 무슨 까닭일까? 「사람들이 내가 취한 줄로 알아줄테니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술 핑계로 싫것 떠들어보자」하고 진담을 말하게 된다는 뜻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취중에 진담」이라는데는 그 이상의 뜻이 숨어 있을것 같다. 현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듯, 우리가 맹맹한 상태에 있을때 갖고 있는 소위 「정상적 의식」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전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의식이기도 하다.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처럼, 선생이면 선생처럼, 친구면 친구처럼, 모두 무엇「처럼」 혹은 무엇「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정상적 의식」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일종의 가면(Persona)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신분, 처지, 지위, 위신, 체면 등등을 생각하면서 「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꺼풀씩」 붙이고 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살자니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진담」이 나올 기회가 거의 없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제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의 역할에 따라 소리를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소리가 아니라 사회에서 얻은 「꺼풀」에 맞는 소리를 내고 있을 따름이다. 가면과 가면이 맞부딪치는 삭막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

일본에 갔을때 만난 동경대학 교수 「가마다」씨의 말이 생각난다. 「친구를 사귀는데 차를 마시면서 사귀면 10년이 걸리는데, 술을 마시면서 사귀면 하루저녁이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맹맹한 의식에서 벗어나 가면이나 가식이 벗겨진 상태에서 적나라한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맞부딪쳐 「진담」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만큼 사이가 진실해지고 빨라진다는 뜻이 아닐까?

옛날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들은 술을 많이 마신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단순한 알콜중독자들이나 통속적의미의 술주정뱅이들이 아니었다. 술을 마시므로 말하자면 새로운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에서 우정을 나누고, 진리를 논하고, 예술을 창조했던 것이리라. 「술한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맹맹한 의식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술만을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술 혹은 주정(酒精)을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 「성령」이라는 의미도 된다. 술과 성령은 서로 통하는데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둘다 흥을 불러 일으킨다. 둘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의 경지로 몰입하게 한다. 물론 술이 손쉬운 방법인데 비해 성령은 더욱 확실하고 훌륭한 방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흔히들 일부 기독교인들을 보고 꽉 막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번 틀어지면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한다고 한다. 술의 작용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막힘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하는 생각때문에 가면이 한꺼풀 더 두꺼워질 뿐이다. 이럴 경우 차라리 「한잔하고」풀어버리는 것이 더 큰 미덕일 수도 있을 것같다.

칼이 그것을 쓸줄 모르거나 옳지 못한데 쓰려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듯, 술도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위험하다. 「곤드레만드레」(프랑스에서 술 제일 잘먹는 사람?)가 돼서 두드려 부수고, 두드려패고, 헛소리를 하기위한 전주곡으로 전락되면 주정뱅이들의 전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잔이 넘치나이다」(시23:5)로 표현한 시편기자처럼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길래 예수님도 천국에서 햇술을 마시는 날을 약속하신것(마26:29) 아닐까? 서로 「진담」을 털어놓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 한 마음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R형, 이글을 술을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알콜중독의 위험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술을 마실줄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만, 「취중에 진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자고 해서 급적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힛트송 표절혐의 배우폰다등 被訴

(로스 엔젤스-AP)가수 돌리·파튼, 배우 제인·폰다와 남편 톰·헤이든등이 힛트송 「나인 투 화이브」의 표절 혐의로 두 작곡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에 의하면 돌리 파튼이 작곡하고 부른 영화 주제곡 「나인 투 화이브」는 닐·긴드버그부부가 1976년 헤이든의 상원의원 선거를 돕기위해 작곡했던 「마니 월드」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커피 2잔의「카페인」이 사람의生命 위협할수도

커피 2잔에 함유된 카페인은 일부 사람들의 심장기능을 방해하고 심장고동까지 변화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 의과대학 교수가 밝혔다.

오하이오주립대학 의대교수 스테판·스캘박사는 의학전문지「누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을 통해 커피 2잔에 포함된 카페인양이 심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장질환의 일종인 심계항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주제 :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리라 ! (렘 29 : 13)

강사 : 피 종 진 목 사

일시 : 1983년 4월14일(목)~17일(주일)

시간 : 매일 저녁7시30분

낮공부-토요일 오전10시

새벽기도-토요일·주일아침6시

★강사소개★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담임

◉대한기독교 부흥사 협의회 부회장

◉세계 복음선교회 회장

◉80 세계 복음화대성회 실행위원및 강사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부위원장및 강사

◉유럽 세계복음화대회 강사(서독 배림)

◉미국 태평양지구 선교회 부회장

◉U.C.C.C. 세계 반공대회 한국대표 참석

◉치안본부 교경중앙위원회 실행위원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목

◉제7차 해외집회인도및 세계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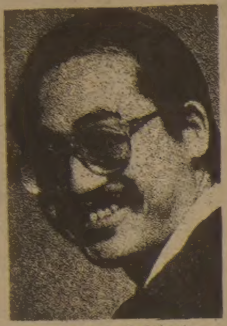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40 MANOR RD. TORONTO.)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알프렛·성 수상영광

클레어롤회사가 주는 패션계의 최고상



◆디자이너 알프렛·성

토론토의 패션디자이너 알프렛·성(34)이 클레어롤·캐나다 회사가 제정한 패션계 실·오브·어취브먼트상·최고상 수상자로 지명돼, 오는 4월19일 몬트리얼의 쉐라톤·센터에서 있을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됐다.

상해에서 출생, 홍콩에서 자랐으며, 66년 프랑스의 유명한 (L'Ecole de 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를 거쳐 뉴욕의 파슨즈 디자인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을 나온 알프렛·성은 72년부터 토론토에서 활약, 이튼·센터와 해이즐튼·레이즌등 토론토 최고급상가에 자신의 부띠끄를 갖고 있다.

활동적이면서 대담한 칼라와 디자인에 고급의상으로는 크게 비싸지않은 의상으로 토론토 패션계를 주름잡는 그는, 북미전체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 안 세사리, 코트까지 다양한 품목을 팔고 있다.

◆알프렛·성의 작품 봄철 수츠

폰티악 400대 주문

수퍼·로토 경품으로

(오샤와)GM캐나다 자동차회사는 5일 인터프로빈셜 복권공사로부터 오는 5월29일과 6월26일에 있을 수퍼·로토(Super Lotto)추첨을 위한 경품으로 400대의 폰티악·그랑프리를 특별주문 받았다.

총비용이 $470만에 달하는 주문자동차에는 투도어, 3.8리터의 V6엔진, 자동트랜스미션, 파워스티어링, 파워브레이크, AM·FM 스테레오등이 부착된다.

GM의 리차드·코롬브 매니저는 "복권공사가 경품을 위해 GM을 선택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로써 수퍼·로토를 위한 2번째의 주문이 되었다고 밝혔다.

GM은 작년도에 약400대의 올스모빌 커틀라스 스프림을 경품으로 발주받은 바 있다.

동우회 이사교체

이대영씨 발탁

동우회(회장: 서명식)는 지난 4월2일자 본지 광고에 발표한 동우회신임이사 명단중 윤응식씨를 이대영씨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동우회는 이사로 위촉받은 윤씨의 수락거부로 명단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드몬톤 한인회

회장단 아취임식

(에드몬톤=

)제16대 에드몬톤 한인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 26일 거행됐다.

이난 하오 1시 하이웨이 모터 인(Highway Motor Inn)에서 열린 한인회총회에서 인준된 강형권회장, 이상호 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에드몬톤지역의 한인대표로서 지도자라기보다 봉사자의 입장에서 각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인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러버보이와 파욜라즈

쥬노상(Juno)상 휩쓸어

캐나다 방송및 레코드제작계의 권위있는 상인 83년도 쥬노상 시상식에서 뱅쿠버의 밴드 러버보이(Loverboy)와, 파욜라즈(The Payolas)가 6개 최고상 부문중 5개 부문을 휩쓸었다.

5일 토론토 하버·캐슬·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파욜라즈는 신인상, 작곡자상, 싱글상, 레코드기술상등을 획득했으며, 작년도에 쥬노상을 휩쓸었던 러버보이는 최고그룹상, 앨범상등을 차지했다.

3년째 최우수여성 컨추리가수로 선정됐으나, 3년째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은 앤·마리는 이날 식의 사회자인 가수 버트·커밍스와 알란·티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캐네디언·아카데미·오브·레코딩·아츠·앤드·사이언시스가 선정 발표할 83년도 쥬노상 수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앨범상=켓·럭키(러버보이)
▲싱글상=Eyes of a Stranger(파올라즈)
▲그룹상=러버보이
▲명예의 전당상=글렌·굴드
▲남자가수상=브라이언·아담즈
▲여자가수상=캐롤·폽
▲컨추리그룹=존·브라더즈

〈컨추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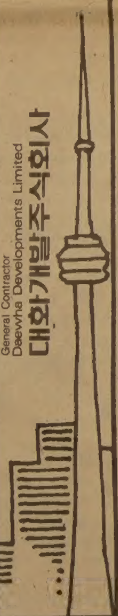
▲컨추리남자가수=에리·이스트맨
▲컨추리여자가수=앤·머리
▲작곡상=밥·랙(파올라즈)
▲기악연주상=료나·보이드
▲신인그룹상=파올라즈
▲신인남자가수상=킴·미첼
▲신인여자가수상=리리아·테일러
▲어린이 앨범=밥·슈나이더(When You Dream a Dream)
▲국제앨범상=Business as Usual(Men at Work)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쥬노상을 휩쓴 B.C.출신 밴드 〈러버보이〉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토론토·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 549 BLOOR ST
532-7909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청 첩

신랑＊안기호씨 3남 종섭군
신부＊원태섭씨 5녀 세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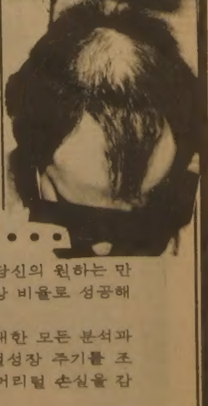
위 두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홍순관목사님의 주례로 화촉을 밝히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3년 4월16일(토) 낮 12시
□장소: 동부한인장로교회 40 YARMOUTH RD. TOR. (CHRISTIE× DUPONT) 한블락 남쪽
□청첩인: 안종훈, 박승모, 안종현 원재훈, 원재엽, 이강석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 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오전11시~오후8시
▲ (토):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8 537-3104

새봄과 더불어 각종행사 만발

캐네디언은 처해있는 환경과 자연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

나이아가라…개화축제, 애완동물쇼
오타와…봄축제, 꽃배 퍼레이드
윈저…디트로이트와 공동으로 자유 축제

오랜 동면을 깨고 대지가 움트는 봄과 함께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면 캐나디안들은 어떻게 지낼까?

일반적으로 캐나다사람들은 처해있는 환경과 자연조건을 최대한으로·이용하고 즐기기를 좋아한다.

이른 봄부터 낮이 긴 여름동안에는 바다가재(Lobster)낚시로 부터 금채취에 이르기까지, 스콧티쉬풍의 유적지로 부터 빙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입지조건과 환경을 구애치 않고 손 안닿는 곳 없이 누비며 다양하게 즐긴다.

마니토바주 위니펙 북서쪽 643Km의 플린·플론(Flin Flon)지역의 경우를 보면 7월1일부터 4일까지 송어축제(Trout Festival)와 함께 캐누경기, 밀가루반죽패킹, 퀸·머메이드(Queen Mermaid, 인어)경연대회, 팬케익조찬회, 침대경기(Bed Race)등 다양한 잔치가 벌어진다.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이 축제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뉴·번스위크주 센·죤스의 경우는 7월17일부터 23일까지 1783년에 들어온 초기이민자들에게서 유래한 축제의 향연을 벌린다.

또 B.C.주의 뉴·웨스트민스터에서는 5월23일 빅토리아여왕을 기념하는 21발의 예포를 필두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그외에 4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인 규모와 소규모로 거행되는 행사는 끊임없다.

월별로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4월 첫주간 온타리오 각 지역에서는 메이플·릴 축제가 열리는데 특히 던다크(Dundalk), 와이어톤(Wiarton)등이 유명하다.

3째주에 퀘벡주 플레시빌(Plessisville)에서도 메이플축제가 열리며, 여기서는 또한 고대풍의 설탕재배모습 재연, 불란서풍 미각을 돋구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노바스코시아주의 북단 컴버랜드(Cumberland)카운티에서도 메이플시럽축제가 유명하다.

북극권의 노스웨스트·테리토리의 이누빅(Inuvik)에서는 4월중순 세계스키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한편 동부 후로비셔만(Frobisher Bay), 투닉타임(Toonik Tyme)에서는 4월말경에 봄맞이 축제의 일환으로 개썰매경기, 이글루(에스키모집)짓기, 스노모빌경기가 열리게 된다.

5월

5월 제3주에 수도 오타와에서는 유명한 봄축제가 열리게 되며 특히 리도캐널(Rideau Canal)에서는 꽃배퍼레이드(Flower Floats)를 비롯해 의사당주변 공원지대의 봄의 꽃전시, 공예품전시, 마라톤경기가 연이어 개최된다.

나이아가라에서는 한달내내 개화축제(Blossom Festival)를 열게 되는데 폭포주변의 가로변에서는 각종꽃전시와 꽃행렬, 공예전시, 애완용동물쇼(Pet Show)가 열린다.

온타리오 겔프(Gueiph)에서는 2주간에 걸쳐 오페라, 심포니연주, 뮤지칼 코메디, 영화및 미술전시회를 갖게된다.

노바·스코시아의 아나폴리스(Annapolis)계곡에서는 마지막주에 사과꽃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즐겁게 해주며 야외운동회및 음악회가 열리게 된다.

사스카추안주의 무스·죠(Moose Jaw)에서는 3째주간에 국제킨즈멘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는 북미 전지역에서 출전하는 유명한 밴드경연대회이다.

알버타주의 배니프(Baniff)에서는 5월부터 3개월간 계속해서 음악, 연극, 춤의 경연대회와 워크·숍(Workshop)을 갖는다.

또한 같은주 그랜드 프레어리(Grande Praire)에서는 유명한 로메오(Rodeo)와 척·왜건(Chuck wagon)경기가 열린다.

B.C.주의 뉴웨스트민스터의 하이액(Hyack)축제는 5월중순에 열리게 되는데 빅토리아여왕생일을 기념하는 연극제 , 캐누경기등이 유명하다.

6월

여름이 시작한다는 하지의 달 6월에는 곳곳에 유명한 축제가 뒤따른다.

유콘주의 화이트호스(Whitehorse)에서는 20일 하지기념 골프토나멘트를 Annie Lake 골프코스에서 개최하고 21일에는 역시 하지기념 테니스대회를 연다.

Yellow Knife에서는 3째주간에 「Folk on the Rock 축제」를 갖고 목청높이기, 드럼춤, 원주민 공예품전, 악사놀이(Fiddler)등이 인기있다.

나이아가라 호수주변엔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데 스트라포드(Stratford)의 세스피어연극축제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연극인들이 다양한 실내및 옥외무대에서 공연한다.

P.E.I.주 샬로테타운(Charlotte Town)축제는 6월중순부터 9월초까지 장기간 열리는데 연극제, 미술전시회, 음악회가 특히 볼만하다.

노바스코시아주의 픽토우(Pictou), 마보우(Mabou), 울프윌(Wolfwille)에서는 마지막 주간에 스코티쉬음악제, 연극제가 유명하다.

6월28일-30까지는 뉴번스위크주 후레드릭톤(Fredericton)의 민속음악제가 열리게 된다.

24일부터는 퀘벡주의 전국축제가 시작되어 이 기간안에 몬트리얼 박람회, 세계 꽃전시회를 연다.

12일에는 몬트리얼 그랑프리자동차 경주가 주목을 끌게된다.

한편 6월말주에는 센·로렌스남쪽강변에서는 유명한 새우축제(Shrimp Festival)가 열린다.

24일부터 7월4일까지 「온」주 남부의 윈저(Windsor)에서는 자유축제(Freedom Festival)가 미국 데트로이트와 공동으로 열리며 캐나다와 미국독립을 동시에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Firework등이 유명하다.

뉴파운드랜드주 센·죤스에서도 1주간에 죤·캐봇(John Cabot)씨가 섬을 발견한 486주년 기념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7월

7월5일부터 10일까지 뉴번스위크주의 세디악(Shediac)에서의 가재(Lobster)축제는 너무나 유명하다.

두째주간에는 노바스코시아의 픽토우에서도 가재축제가 열린다.

1일부터 9월의 노동절까지 오타와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의사당 수비대 교대식(Guard Ceremony)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악대와 의장대가 퍼레이드를 벌리며 행하는 총독관저수비교대식도 유명하다

24일부터 퀘벡주의 퍼리봉카(Peribonka)에서 로버발(Roberval)을 잇는 32Km의 St. John호수를 건너는 수영경기는 대단한 인기이다.

9·10일 양일간 같은 지역 Valley Field에서의 국제경조경기는 많은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20-30일까지 에드몬톤에서는 연례 크론다이크(Klondike)축제가 열리는데 이 행사는 1890년대의 의상전시와 골드러시시대의 풍경을 재연한다.

7일-17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는 로데오, 척왜곤경기가 열리며, 사스카툰에서는 11일-16일까지 개척자의 날(Pioneer Days)을 열고 초기정착민시대의 풍물, 농경, 증기기관등을 재연한다.

마니토바주 다우핀(Dauphin)의 우크라니안(Ukranian)축제도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초기이민의 역사, 코작(Cossack)춤, 전통의상, 음식소개등이 주목을 끈다.

7월말부터 8월초까지의 위니펙부근의 김리(Gimli)호수의 얼음축제가 관심을 끌며, 20-24일까지 마니토바주의 모리스(moni s)에서는 서부지역의 가장 큰 Rodeo경기가 개최된다. 이 기간에 농업경진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 기간에 노바스코시아의 프과시(Pugwash)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하이랜드(Highland)게임이 열려 춤과 파이핑(Piping)등의 놀이가 있게되며 또 안티고니쉬(Antigonish)에서도 파이프밴드의 연주경연대회가 열린다.

30일엔 온타리오의 글렌게리(Glengary)에서도 역시 Highland게임이 열리는데 통나무자르기, 드럼통타기등의 각종 경기가 관심을 끈다.

17일부터 뱅쿠버에서는 세계각국이 참석하는 목욕통 모터보트(Bathtub)경기가 일품이다.

또한 7-17일까지 퀘벡시에서는 여름축제로서 음악회, 연극제가 인기를 모은다.

8월

8월 초순부터 3주간 온타리오 브랜트포드(Brantford)에서는 6개국 인디안경연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인디안의 역사, 문화, 음악, 연극, 공예품경진대회가 포함된다.

한편 첫주간 휴론호수의 위케미콩(Wikwemikong)의 인디안 축제역시 아동들에게 훌륭한 견학이 된다.

5일 센죤항구에서는 서·월터로리(Sir·Walter Raleigh)의 형제의 센 죤스 정착 4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함대도착이 유명한데 이 함대는 7월초 해밀톤(Hamilton)에서 출발한 것이다.

B.C.주 아보츠포드(Abbotsford)에서는 12-14일에 걸쳐 가장 큰 규모의 에어·쇼(Air Show)가 캐나다 공군협찬과 민간인 참가로 열리게 된다.

뉴파운드랜드주 센죤스에서는 3일 북미최대의 Regatta(경조경기)를 퀴디비디(Quidi Vidi)호수에서 열게된다.

또한 1주간에 노바스코시아 센·앤스(St. Ann's) Gaelic대학에서는 게일족 민속제가 열린다.

이어 같은 뉴·글라스고우(New Glasgow)에서는 타탄(Tartans)축제가 열려 각종 민속춤, 음악제, 체육제전이 선보인다.

1-6일까지 르자이나(Regina)에서는 버팔로(Buffalo)축제가 열리며 이 기간동안 낙하산투하, 의상제가 구미를 돋군다.

위니펙에서는 6-14일까지 포크로라마(Folklorama)축제를 열고 38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음식시식회를 가지며 세계민속제전을 열어 민속춤, 의상을 시범한다.

12-14일까지는 보이세이안(Boissenian)에서 유명한 거북경주(Turttle Derby)가 열려 인기를 끌고, 12-15까지 유콘주의 Dawson시에서는 1902년 금광발견을 기념하는 대 축제가 열린다.

온타리오 센·캐터린(St. Catherine)에서는 3-7일까지 가장 권위있는 제101회 로얄·캐네디언 헨리(Henley)조정경기대회가 열리게 된다.

9월

9월9일 퀘벡주 서부지역 축제가 St. Tite에서 열리는데 동부에서는 유일한 로데오경기가 진행되며 3-9일까지는 St. Morris강 연안 160Km에 이르는 캐누경기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한편 온타리오 북단 선더·베이(Thunder Bay)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인디안 원주민들의 민속, 연극, 공예품시범등의 행사를 갖는다.

윈저(Windsor)시에서는 이달 중순 이탈리언 포도주축제, 이태리음식경연대회, 스파게티먹기경기, 볼링등 여름을 마무리짓는 다채로운 경기가 벌어진다.

◆스코트랜드풍의 백파이프악대가 금년 여름 캐나다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독특한 멜로디로 흥취를 돋구게 된다.

"이몸매면 主演맡을수 있지요"

▲최근 「판타지·아일랜드」에서 선보인 신인 패티·코테로, 올가을에 시작될 ABC미니시리즈에서 주연을 맡게된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OW MUCH DO I OWE YOU?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은 다양한 것같다.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How much will it cost? What does my bill come to? How much do I owe you? 등 많이 있다. How much do I owe you?에서 owe는 빚지다의 뜻이니 직역을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나요? 결국은 「얼마입니까?」라는 뜻이다.

가게 주인이 「어서 오세요」 혹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하면 「저 외투가 마음에 드는데요」 I'm interesting in that top coat,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be interested in 하면 숙어로 「~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므로 결국은 마음에 든다는 얘기이다. 예컨대 「당신은 한국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는 Are you interested in Korean history?라고 하며 여기에 대한 대답은 Yes, I am, (interested in Korean history.)이다.

A: How much do I owe you?
B: You owe me $5.50 plus tax, Will there be anything else?
A: Let me see that blue tie.
B: Here you are.
A: I'll take this, too.
B: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show you?
A: 얼마입니까?
B: $5.50에 세금을 더하면 됩니다.
A: 저 푸른색 타이 좀 봅시다.
B: 여기 있읍니다.
A: 이것도 사겠읍니다.
B: 또 보고 싶으신 게 있나요?

*owe: 빚지고 있다.
plus tax: 세금을 더하다. plus tax는 물건 값에다 tax를 붙여야한다는 뜻이고 with the tax는 tax까지 포함해서라는 애기다.
예컨대, $5.00 plus tax란 결국 tax까지 포함하여서 (5% 판매세를 가산한다면) %5.25란 애기요, $5.25 with the tax란 이미 tax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I'll take this, 이걸 사겠다.
*발음 take this: (테이크 디스)가 아니고 (테익 디스)로 발음된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11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감사 말씀

금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황필연(카타리나) 빙모님의 장례식에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고인의 이별과 저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여러 교인, 교민, 친지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3년 4 월 6 일

유가족
대표 신 성 열

선교사모집

□인 원 : 1명
□자 격 :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나 전도사로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파송지 : 나이제리아, 아프카니스탄, 카메른, 일본중에서 어느 한나라
□대 우 : 카나다장로교 선교사대우에 기준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 1통
□보내실곳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ONT.
(416)535-6864
□참 고 : ①후보자는 카나다 장로교회 세계선교부의 인터뷰에 의해 결정됨.
②선정된 선교사는 한인장로교회가 카나다장로교 해외선교부를 통해 파송하게됨.
□문 의 : (1) 카나다장로교회 세계선교부
해외총무 Rev. Glenn Davis (416) 441-1111
(2) 한인장로교회 목사 박회민(535-6864), 선교부장 강대길(622-8090)

경운회(경기여고)

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해마다 새롭고 희망에 찬 기쁨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각가정에 새꿈이 무르익어가는 봄을 맞이하소서!

봄맞이 동창회를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ㅁ때 : 1983년 4 월29일(금)
오후 6 시30분
ㅁ곳 : 마초 레스토랑
4035 Gordon Baker Rd.
(Steeles Ave. 한블럭 남쪽 on Victoria Pk. ☎ 498-1300)
ㅁ연락처 : 차순자(698-6907)
박영자(736-1222

경기여고동창회토론토지부
(경운회)

한국일보
우리고장을 健全한新聞

大檢、4개財閥 수사着手

韓一합섬·曉星·碧山·味元간부 召喚
토지 再買入과정의 不正여부 조사

오늘 搜査방향 발표
金根祚씨 사건眞相도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의喜부장검사)는 金相浹국무총리의 지시에따라 5일 韓一합섬을 비롯한 曉星、碧山、味元등 4개재벌기업이 비업무용토지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에관계있는지 여부에대한 전면수사에 착수、4개재벌회사의 간부등 관계자 10여명을 소환했다。

대검은 이날상오 공휴일인데도 중앙수사부4개과 과장(부장검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소집、이미 넘겨받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관계서류를 토대로▲이들 4개기업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비업무용토지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의 경매부정여부 ▲토지개발공사와 기업체관계직원과의 결탁및 금품수수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金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4일밤 수사지시를받아 검찰이직접 진상을 규명키로했다』고 밝히고『6일상오중으로 수사계획과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韓一합섬등 4개기업은 비업무용토지를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지시(80·9·17조치)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 대상토지를 판뒤 토개공이 이를 경매에붙이자 다시 사들여 문제가 됐으며 감사원은 이과정에서의 부정여부를 이미 조사해놓은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조사자료는 4일밤늦게 검찰에넘겨져 최종확인이 되는대로 형사처벌 한계등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장 金道彦부장검사는 이미 경찰에 구속돼 지난1일 검찰로 송치된 치안본부 수사대 金萬熙경위의 金根祚씨(韓一합섬이사) 폭행치사사건에대해서도 경찰조사와별도로 진상조사를 철저히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4일 하오 6시부터 8시까지 중앙청에서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裵命仁법무장관은 金相浹국무총리로부터『4개재벌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부정여부와 金경위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하라』는 지시를받고 이날밤 대검에들러 金錫輝검찰총장에게 수사지시를 내렸었다。

이날 裵장관은 하오8시30분께 검찰에 도착、金총장과 수사계획등에 대해 협의했는데 장관과 총장이 퇴청한 후에도 金의喜중앙수사부장과 辛建중앙수사부1과장은 자정무렵까지 중앙수사부 각과별 사건담당내용과 수사방향등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5일은 식목일로 공휴일이었지만 중앙수사부 관계자들은 모두 정상출근했다。

철야수사에 대비한듯 점퍼를 따로 들고 출근한 중앙수사부3과장 金泰政부장검사、4과장 李源性부장검사등은『수사계획이나 방향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없다』면서『정상출근을 하라는 소집에 따라 출근했을뿐』이라며 함구로 일관했다。

또 대검중앙수사부는 4일밤부터 검찰청수위실에 보도진들 외부인사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한데 이어 5일에도 철저히 출입을 통제、이번 수사가 최종발표때까지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될것임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한관계자는『국민들의 의혹을 하루빨리 풀기위해 수사는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혀 수사발표가 늦어도 이번 주말께는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일중으로는 관계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만 있는듯 해당기업의 관련자나 토개공직원은 소환되지는 않았다。

佛、蘇外交官·타스支局長등 間諜혐의 47명追放

【파리·모스크바外電=聯合】프랑스정부는 駐佛소련대사관 1등참사관을 포함한 소련인 외교관및 언론인47명을 간첩혐의로 추방했다고 파리의 일간 리베라숑紙가 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프랑스와 미테랑 사회당 정부에의한 추방령이 즉각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추방된 외교관 가운데는 프랑스주재 소련대사관의 서열3위의 인물인 니콜라이·체베리코트 1등참사관이 포함돼있으며 타스통신의 파리지국장인 올렉·시로코프도 포함돼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이들47명은 파리에 집결해있으며 그들의 가족들은모스크바로부터 비행기가 보내지는즉시 프랑스를 떠나게될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하고출국날짜를연기해달라는소련측의 요청이거절됐다고덧붙였다。

프랑스외무성과 소련대사관측은 모두 이같은보도에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지난주 영국에서도 간첩활동에 관계했다는 이유로 런던주재 소련대사관 공군무관 2등서기관및 신문사 특파원등 3명을 추방했으며 스페인정부도 지난1일 소련외교관 1명에 출국령을내렸다。

소련소식통은 추방된 사람의 수를 밝히지않았으나 타스통신 파리지국장및 해설자가 추방된사실을 확인했다。

간첩사건과 관련 프랑스정부가내린이번추방조치는프랑스·소련간에 사상최대의규모이다。소련대사관은강제출국령과관련모로와수상과접촉하기위해 노력했으나 면담을실현시키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프랑스경찰은 외국인에게 기밀을 넘겨준 한기록보관인을 체포했는데 신문들은 패트릭·게리에(25)가 산업문서를 소련대사관에 넘겨준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토지不正 철저히調査"

金총리指示 "경관의 暴行致死사건도"

정부는 4일하오 중앙청에서 金相浹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韓一합섬의비업무용토지再買入과정과 이와관련된 경찰관의 폭행치사사건에대한 처리문제를 협의、검찰이전면수사토록했다。

金총리는 이날모임에서 그동안의 감사원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토지개발공사와 韓一합섬을 비롯한 碧山 味元 曉星등 4개기업의 비업무용토지 再買入과정의 부정여부에 대해 검찰이 그 진상을 철저히 구명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또 이와관련、이미 검찰에 구속송치된 폭행경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의혹을풀수있도록이사건을철저히조사、처리하라고지시했다。

이날 하오6~8시까지2시간동안 계속된 회의에는金埈成부총리 盧泰愚내무 姜慶植재무 裵命仁법무 金宗鎬건설 李振羲문공장관등이 참석했다。

民正黨 議員세미나 오늘 黨運營등논의

民正黨은 6일 서울江東區可樂洞 중앙정치연수원에서 黨職·國會職개편후 첫 의원세미나를열고 11代국회 후반기의 黨운영방안、정책방향및 제1백16회 임시국회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의원세미나에서 權翊鉉사무총장은 黨운영에대해 설명한다。

◇全대통령이 서울대공원 境內에서 나무를 심고있다。

"造林투자 중점支援을"

全대통령、서울大公園야산서 기념植樹

全斗煥대통령은 植木日인 5일 상오 盧泰愚내무장관、孫宗鎬산림청장、育林家、그리고 서울시청직원등과 함께 京畿道始興郡果川面莫溪里서울대공원내 야산에 잣나무등을 심었다。

全대통령은 植木을 끝낸뒤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에서독림가、새마을지도자、營農후계자등 29명과 오찬을 함께하며『造林과 育林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것이 좋겠다』고 말하고『독림가나 山主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지않는 방향에서 山林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山地를 山主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각급학교에 맡겨 나무를 심고 가꾸게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나무는 當代에서 쓰려고 할것이 아니라 20、30년후인 다음세대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고 가꾸어 그자체가 資源이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林業분야의人材를 장기계획을 세워、양성토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앞으로는 市郡등 일선산림기관에 산림전문가들이 근무하도록해야하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선 산림기관 근무자들에게 산림교육을 시켜 근무토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育林등 事後관리에 역점을두고 草地조성이나 間伐을 悪用、나무를 마구 자르는일이 없도록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境內등에 25년생 白松두그루를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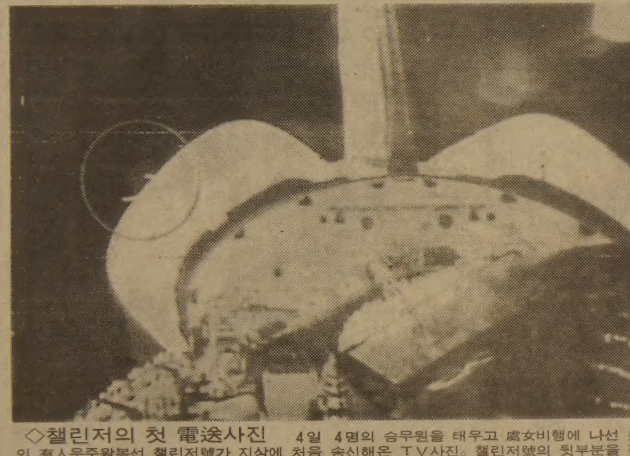
金總理도 기념植樹

金相浹국무총리는 5일총리비서실·행정조정실 직원등 1백여명과 함께 京畿道城南市下大院洞山34의1일대의야산 1ha에 잣나무 2천그루를 심었다。

이날 외무부의 李範錫장관과 직원1백여명은 京畿道龍仁郡器興面靈德里 야산에 잣나무 3천9백그루를、朴[illegible]敎·李振羲장관을 비롯한 총무처 직원들과 문공부직원들은 京畿道楊州郡長興面日迎里와 果川 제2종합청사주변에 7천7백그루를、정무제1장관실은 廣州郡木峴1리 1.5ha에 잣나무 4천5백그루를 각각 심었다。

青瓦臺비서·경호실 직원들도 城南市서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植木日인 5일 京畿道城南市栗洞 새마을연수원 新築地앞 야산에 잣나무8천그루를 심었다。



◇챌린저의 첫 電送사진 4일 4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處女비행에 나선 美國의 有人우주왕복선 챌린저號가 지상에 처음 송신해온 TV사진。챌린저號의 뒷부분을 찍은 것으로 사진 앞부분은 화물실, 중앙은 우주선 후미, 圓內는 승무원들이 왼쪽엔진의 防熱타일 2개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한 부분。【휴스턴 우주센터 4일UPI電送=聯合】

챌린저號 順航

어제새벽 發射

【케이프 카내베랄(미플로리다州)AP·UPI=聯合】미국의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5일새벽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발사되어 46분후 지상 2백85㎞의 궤도에 진입、세계최대·최강통신위성을 설치하고 미국으로서는 약10년만에 처음으로 우주유영을하기위한 5일간의 처녀우주비행에 들어갔다。

2달반동안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던 12억달러짜리 챌린저호 (2천2백톤)는 이날 5일간의 거의 완벽한 카운트다운끝에 3개의 主엔진이 점화되기시작함에 따라 폭음과 불꽃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다。

지난주간 연료누출로 말썽을 부려왔던 主엔진들은 이날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발사46분후 챌린저호는 지상 2백85㎞의 궤도에 진입、시속2만8천㎞의 속도로 궤도비행을 시작했다。

선장 폴·위츠(50) 조종사 캐롤·봅코(45) 의사 스토리·무스그레이브(47) 엔지니어 도널드·피터슨(49)등 4명을 태운 챌린저호가 궤도에 진입한직후 선장 위츠는 마스터경보기가 울렸다。(이는 선실내 공기에 이상이 있음을 뜻한다)고 텍사스주 휴스턴소재 지상관제소에 보고해왔으며 관제소는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무런 고장도 없음을 발견하고 우주인들에게 무전으로『이상무』란 답신을 타전했다。

위츠는 또 보조추진로켓트를 제체에 이상이있다고 보고했으나 챌린저호의 작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챌린저호 우주인들은 앞으로 5일간 지구주변궤도를80회선회、3백50만㎞를 비행하면서 앞으로 2년내로 상업·국방·과학적 용도의 화물들을 싣고 매달 정기우주비행에 들어갈 4대의 有人우주왕복선단의 2번째 우주선인 챌린저호의 성능을 시험하게 된다。

金씨死亡 糾明하라
民韓黨 성명발표

民韓黨의 睦堯相대변인은 5일 정부가 4개 財閥기업의非업무용토지再買入과정을 수사키로 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金根祚씨 고문致死사건에 대한 의혹이 가셔지지않고 경찰행정책임자의 引責이 마저 선결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방침은 혹시 국민들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관심을 딴데로 돌려 糊塗하려는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충분하다』면서『정부는 고문치사사건의 引責으로 최소한 경찰행정책임자만이라도 退陣시키고 검찰이 고문경위를 철저히 재수사、진상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先進祖國창조 標語 公募
25일마감…當選作 1편 50만원

韓國新聞協會는 先進祖國 創造를위한 標語를 公募합니다。우리社會에서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고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밝은내일을 건설하는데 촉매역할을 할수있는 참신한 내용의 작품이어야 하겠읍니다。다음要領을 참조하시고 많은 應募있으시기바랍니다。

1、公募기간:4월6일~4월25일까지

2、標語내용:①질서의 生活化 거리、교통질서、行楽질서、경기장질서、상거래질서、기타 공중질서 ②健全소비생활 호화혼수 지양、外製選好지양、알뜰살림 가꾸기、식생활 간소화 ③請託안하기 ④信賴사회조성 ⑤主人意識함양 시간약속지키기、친절하기、고발정신함양、自己職分 다하기

3、應募方法:①위 내용가운데 한가지를 選擇하여標語를 만들것 ②반드시 관제엽서를 사용하되 1枚當 1편만을 記入

4、施賞:①당선작1편 상금 50만원 ②우수작2편 상금각20만원및상패 ③가작16편 상금 각5만원및상패

5、審査및발표: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審査위원회가 심사하여5월10일(화)字 全國신문지상에 발표

6、接受處:韓國新聞協會 우편번호 100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441 (한국경제신문사 별관4층)

—韓國新聞協會·한국일보社

社會漫評

「東手無策당국」白…

地平線

『어떻게 생활이 달라지던가요?』— 수백명의 신문기자들이 뉴욕의 복권당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수천번은 했을 것이라고 한다。1등에 당첨되면 상금은 1백만달러—우리 돈으로 쳐서 7억7천만원이다。그러나 뉴욕복권당첨인 존·퀸이라는 사람은『그렇게 달라지지 않더라』고 말한다。▼16년동안 빌딩 청소부노릇을 했던 버스운전사의 아내 유크부인은 주먹만한 다이어먼드반지를 끼고 침실이 네개나 있는 큰집으로 이사갔지만 청소부시절이 그립다고 말한다。『그때는 인생에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다。로버트·네토라는 주유소 종업원은 당장 사표를 내던졌지만 무료한데 지쳐서 1년뒤 다시 주유소로 돌아갔다。그는 아내가 25달러짜리 핸드백을 샀다고 버럭 화를냈다。▼세계에서 가장 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은 영국사람이라고 한다。국민 5명중 네사람이 내기꾼이라는 얘기다。가장 인기있는 내기는 축구경기에 거는「축구복권」이다。주말마다 축구복권을 사는 영국사람은 1천만에서 1천3백만정도。1등에 걸리기만하면 75만파운드、그러니까 8억3천4백75만원의 돈벼락을 맞게된다。그다음으로 대부분 근로층 부인들 3~4백만이 몰리는 빙고게임이 인기다。▼유럽에서 복권이 시작되기는 15세기 벨기에서였다한다。복권을 팔아 성곽도 수리하고、자선사업도 했다。16세기초엽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다시 영국으로 번져갔다。그래서 지금은 세계 약 80개국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한다。대체로 발행액의 50~60%가 상금으로 나가고、수익금은 30~35%、비용이 10~15%라는 것이다。▼액면 5백원짜리 올림픽복권 1회분이 매진됐다 한다。「1억원의 행운을 잡아보자는 서민의 꿈이 크다는것을 알수있다。상금50%에 비용 15%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상당히 짠 편」에 속하는 복권이다。비용 15%를 10%선으로 줄여보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돈벼락의 꿈」을 팔아 올림픽도 치르고、서민의 집도 짓자는 것인만큼 그만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illegible]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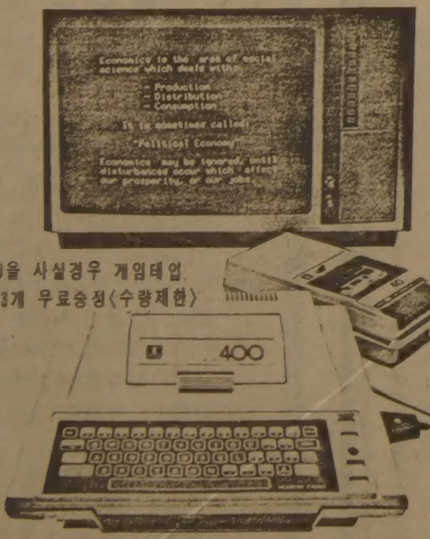
신장개업

홈 컴퓨타

금번 저희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 컴퓨타및 각종 부품, 컴퓨타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개업일 1983년 4월 2일

ㅁ이제 자녀교육을 위하여 홈 컴퓨타를 구입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ㅁ홈 컴퓨타 구입에 관한 상담을 성심껏 해드리겠읍니다.
ㅁ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ATARI 400을 사실경우 게임테입
3개 무료증정(수량제한)

-취급품목-
*ATARI *COLECO *INTELLIVISION
*C.ITOH'S PRO-WRITER PRINTER
*AMDEK COLOR MONITOR
*각종 교육자료및 GAME

COMPUPLACE INC. ☎: 243-0411
1700 WILSON AVE. (SHERIDAN MALL) 김성구, 홍성호

反政首都 오보크 失陷

베트남軍공세 5일째… 泰軍은 전투기동원

泰·越 전면衝突 기세

【방콕發UPI=聯合】 베트남軍과 헹 삼린캄보디아 정부군은 연5일째의 乾期대공세 끝에 4일 소론동·시아누크가 이끄는 反정부캄보디아 聯政수도오보크지역을 함락했으며 타이는 최신예전투기를동원, 이날 越境작전을벌이는 베트남軍을 공격함으로써 이번전투는 타이·베트남간의 정면충돌로 확산될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군사소식통들은 3일밤부터 18시간동안 벌어진 헹 삼린정부군과 聯政軍간의 치열한 전투끝에 오보크가 함락된후 약3천명의 캄푸체아 난민들이 타이로 피신, 北東국경지역인 수린省의 밀림과 산악지대로 흩어졌다고 전했다.

시아누크公이 이끄는 민주캄보디아연정의 본부 오보크는 수린성 카프 청지방의 타이접경으로부터 약2㎞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군사소식통들은 약1천명의 시아누크휘하군대가 헹삼린정부군의 기습에맞서 완강한 저항을 시도했으나 이날자정 끝내 본부를 함락당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오보크는 이번 乾期대공세가 시작된이래 헹 삼린정부군에 의해 함락된 두번째 지역이다.

이에 앞서 프놈 차트소재 크메르루지의 찬 카고 캠프가 헹 삼린 점부군에 함락된바있다.

타이군소식통들은 또 이날 타이공군이 보유한 최신예전투기인 미제F5E 타이거스 2대가 타이영내 2㎞지점인 프놈 프라부근까지 진격, 진지를 구축한 약1백명의 베트남군에 폭탄을 투하하고 맹렬한 기총소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타이 공군기의 공격을 받은 베트남군들이 대공포로 응사하다가 산악지역의 동굴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女게릴라들의 보급작전行列 크메르 루지 게릴라의 부녀자들이 4일 泰·캄보디아 국경지역에있는 정글의 小路를 따라 로키트彈과 여타 보급품들을 머리로 나르고있다. 【프놈막 훈(캄보디아) 5日 UPI電送=聯合】

泰·싱가포르軍 합동 機動훈련

【싱가포르UPI=聯合】 민주캄보디아연정군에대한 베트남의 乾季대공세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타이양국은 4일 합동해군기동훈련을 시작했다고 싱가포르국방성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합동기동훈련이 양국해군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위해 1주일간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다.

蘇서 鄕歌소개책자 出刊

모스크바방송 "韓半島이해 도움"

【서울=聯合】 소련에서는 최근 新羅의 鄕歌를 소개한 植과 神話에 관한 古代朝鮮의 文學이라는 책자를 출판했다고 모스크바방송이 1일 보도했다.

소련과학원 산하 나우카출판사에서 발간한것으로 알려진 이책자에대해 모스크바방송은 이책은이미 출판된 중세기 한국의 단편소설집, 한국신화집, 속담·전설집등과 함께 韓半島의 역사와 문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日·蘇외교마찰 擴大

「核기지발언」두고 비난 加熱

【東京=聯合】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의 오끼나와해 기지발언을 둘러싸고 일본과 소련의 외교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다까시마·마쓰오(高島益郞)駐蘇일본대사는 4일 하오 부임1년만에 처음으로 티호노프소련수상을 만나 일본의 對蘇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북방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요구한반면 오끼나와에 거대한 핵기지가 있다는 그로미코외상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항의했다고 일본신문들이 4일 보도했다.

그러나 티호노프수상은 日·蘇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래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그로미코 발언에 대한 항의를 무시한채 오히려 나까소네수상의 『불침항모』 및 해협봉쇄발언이 도발적이라고 비판하는등 對日역공세를 취했다.

작년4월 부임한 다까시마대사의 끈질긴 회담요청을 1년만에 겨우 수락한 소련측의 이 4일회담에서 일본의 항의를 묵살한데 대해 일본외무성은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일본신문들도 『일본의 항의를 문전거절』했다고 크게보도했다.

安保理 긴급召集 요구

아랍國들, 이측「毒殺」주장 논의위해

【유엔본부UPI=聯合】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 4일 이스라엘측이 요르단江西岸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毒殺운동을자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과 관련, 아랍국가들은 아라파트보고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을요청했다.

이달의 安保理의장인 진·커크패트릭미국대사는 이 요청을 논의하기위해 4일하오에 비밀협의를 갖도록 15개 이사국들에 지시했으나 뒤이어 『공개회의가 열릴것인지 또는 5일에 공개회의가 소집될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시사가없다』.

아라파트의장은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보낸 서한에서 요르단 江西岸에있는 이스라엘군이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여학생에게 『毒劇物』을투여하여 서서히죽게하는 새로운수법의 비인도적 犯罪운동을벌였다』고주장, 『수천명의 인명을 보호하기위한 유엔의 확고한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스라엘측은 『조작된 사기극』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美, 終戰후 2백62차례 해외派兵

蘇의 저지위해 군사력 최대活用

【워싱턴=聯合】 미국은 2차대전종전이후 2백62차례나 대외정책수행을 위해 미군을 해외에 파병해왔다고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4일 발간된 4월11일자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베리·블레치먼, 스테픈·캐플런및 필립·젤리코등 3명의 학자가 집필한 공동저술을 인용, 1950년대의 냉전이래 소련의 모험주의를 저지하기위한 미국의 군사력사용은 최근들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한국전을포함한 21개사례는 2차대전이끝난이래 미국이 대외정책목표들을 추진하기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온 방법을 예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信 안테나

"사할린 한국교포 차별대우 是正을"

【유엔本部AP=聯合】 소련령사할린에 거주하고있는 한국교포의 지위에관한 일본변호사협회연맹의 탄원서가 유엔본부에 접수되었다고 4일 유엔본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일본변호사협회연맹은 이 탄원서에서 사할린의 한국교포들이 차별대우를 받고있으며 교포 3천명이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CIA 니카라과反政세력 지원

3천만달러 상당 秘密자금 사용

【뉴욕AP=聯合】 미중앙정보국(CIA)은 니카라과 반정세력을 지원하기위해 3천만달러상당의 비밀자금을 사용했다고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CIA가 니카라과에서 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에게 무기가 흘러들어가는것을 막는것이 니카라과반정세력의 임무라고 계속 고집하고있으나 미의원들은 이들 반정세력의 진짜 비밀작전의 목표가 니카라과 좌익정권의 전복에 있다는 우려를 더 깊게 갖고있다고 말했다.

釜關페리 5월就航

토요일외 매일運航

【東京=聯合】 釜山과 일본시모노세끼(下關)간의 페리가 오는 5월8일부터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항된다.

이 釜關페리항로는 지난 70년6월 개설된후 매주 월·수·금요일등 3차례 일본측의 釜關페리號(5천2백톤)가 취항해왔으나 한국측의 釜關페리호(5천7백톤)가 새로 취항함에 따라 앞으로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운항하게된 것이다.

눈사태로 蘇軍1백~3백명 沒死

아프간북부 살랑지역초소 파묻혀

【이슬라마바드AFP=聯合】 아프가니스탄북부살랑지역에서 지난2월 소련군초소 4개소가 눈사태에 파묻혀 1백~3백명의 소련군이 몰사했다고 아프간회교저항세력 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이 초소들은 지난해 수송사고로 소련군수백명이 목숨을잃었던 살랑터널남쪽끝에있었다.

◇他界한 女優 글로리어·스원슨 4일 뉴욕의 한병원에서 84세를 일기로 사망한 美國의 여배우 글로리어·스원슨이 『황혼의 가로수길』이라는 영화에서 故윌리엄·홀든과 공연하고있다. 【뉴욕4日UPI電送=聯合】

日, 동작速度신기록 超高速컴퓨터 豫告

【東京=聯合】 일본은 차기세대의 초고속컴퓨터에 사용될것으로 기대되는 조셉슨素子를 이용, 세계최고의 동작속도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통산성의 공업기술원 전자기술종합연구소는 4일 동작속도 7티코초(1티코초는 1조분의 1초)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10티코초의 벽을 깼으며 이에따라 기상관측이나 도형처리, 원자력개발등 광대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초고속컴퓨터의실현이 가까와졌다고 밝혔다.

조셉슨素子는 섭씨 마이너스 2백73도 정도의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면 전기저항이 없어지는 超傳導현상을 이용한것으로 고속으로 동작하면서도 소비전력이 적어 현재 세계각국에서 격심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다.

海外토픽

모스크바富裕層에 포르노 暗賣

★蘇당국일당6명에 重刑 소련사법당국은 최근 포르노를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암거래한 일당6명을 검거, 이들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소비에트스카야·로시아紙는 3일 범인들에게 부과된 형량은 밝히지 않은채 과학자·조각가·기술자등이 포함된 이들 일당이 쇄도하는 고객들의 주문에 대기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비디오테이프 제작에 열중해왔다고 보도.

이들은 주로 스웨덴에서 밀반입한 필름을 복사, 모스크바등 주요도시의 부유층자녀가 대부분인 『선별된 고객』에게 암매했으며 한술 더떠서 日本에서 밀수입한 비디오레코더의 밀매사업에도 손을 댔다고. 【AFP】

주방침입한 강도 냉장고가둬 잡아

일본 교오또(京都)시에 있는 교오또역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은 4일 주방에 뛰어든 강도를 대형냉장고속에 가두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했다. 【UPI】

美 成人11%가 幻覺劑 하루5백명늘어

한때 상류계층의 악습으로만 여겨졌던 코카인 환각제남용사례가 미국에서 크게만연돼 성인중 약11%가 이환각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시사주간 타임誌의 최근호에따르면 코카인남용이 근로계층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코카인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평균 약5백명씩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AP】

社說

길이 가리키는 條理

—道理따라 通行하고 管理해야

봄은 본격적으로 열렸다.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크게 늘고 그에따라 길위의 통행량은 날로 더 붐벼만 간다. 그 길(道路)이란 사람과 교통수단들이 편히 다닐수있도록 만든 땅을 말한다. 道路法에서는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및 ⑥군도로서 一般의 교통에 供用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길이 잘 만들어지고 그길이가 길수록 그나라 그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지금 전국의 陸路길이는 4만8천㎞내외이다. 이 길이를 더욱 늘리고 넓히며 포장하는것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되고있다. 地方村落 지역에선 그 포장과 路幅확대에 있고, 도시지역인 경우는 폭의확대와 아울러 교통질서확립및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서울을 釜山을 비롯한 大都市의 교통혼잡상은 잠시도 소홀히 방치할수없는 큰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차량들이 통행질서를 지키는 일은 그중 가장 으뜸가는 한 과제다. 또 그에 못지않게 步道의 질서유지와 정비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행인들이 車道를 범하고 횡단보도아닌곳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행위는 교통혼잡과 사고의 큰 원인을 이룬다. 人道가 대체로 비좁기때문에 통행인이 보행질서를 지키는게 곧 혼잡을 줄이며 막는 요결이다.

한데 사람과 車들이 이런 질서를 지키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人道와 車道邊을 不法的으로 차지하고있는 물체들이다. 人道여기저기에 行商이 진을치고 설치물이 늘어섰는가 하면 차도변에 각종자동차가 마구 늘어서있는 현상은 도시질서유지와 교통상의 암적존재임에 틀림없다. 당사자들이 이를 삼가야할것은 물론이고 단속당국도 근본대책을 세워 후련하게 정비할일이다.

개방사회와 자유경제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외국손님이 이렇듯 무질서한 대도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상상할때, 우리의 文化와 文明수준을 올바르게 보여주기위해서도 거리질서와 환경은 크게 개선돼야 하겠다.

길의질서가 흐트러지고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無形的인 우리의 生活觀에서 연유하는것 같다. 누구나 大門안에서는 훌륭한 父母요, 착한 아들딸인데 일단 大門밖 길로 나서면 公衆도덕엔 아랑곳없는 무질서한 市民으로 되기일쑤다.

人類는 自古로 길이란는 용어에 두가지의 개념을 부여하였다. 그 하나는 왕래하는 곳이란는 뜻이고 다른하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 道 또는 法을 의미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아니한다」는 말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근본도리를 단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다. 고도한 윤리·도덕·수양을 쌓는 일을 길을 닦는다(修道)라고 하며 누구나 이런 경지를 人生의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할수록 사람으로서 마음의 길은 이렇게 닦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왕래하는 길에선 無道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것은 참으로 개탄할만한 일이다. 大門을 나서는 순간부터 길을 올바르게 밟을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人生行路를 거니는 사회생활 [illegible] 세상을 [illegible] 가정·학교·직장을 막론하고 이런 마음 가짐·몸가짐을 좌우명으로 삼으면 어떠할까. 그로부터 답답하던 통로는 널리 트이고 길의 주인인 사람들이 장애물없는 통행을 보장 받게 될 것이다. 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오늘의 교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일 수 없는 것이다.

知的所有權의 존중

—수치스런 商標도용 根絶시켜야

지난 월말 특허청서 열렸던 제1차 韓美공업소유권회담(4일간)을 통해 미측은 미국의 상표·특허·저작권등 이른바 知的소유권이 한국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실례를 들면서 적절한 보호를 요망했다 한다.

제시된 상표도용의 事例를보면 조다시 플레이보이 피노키오 아이보리같은 미국내 유명상표들이 정당한 사용계약 없이 국내일부 업자들에 의하여 함부로 상품에 부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표도용 말고도 미특허발명국에 등록된것이나 인기상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싼값으로 수출되고 있어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한국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加入하지 않아 그 보호에도 문제가있는것으로 지적되었다한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知的소유권보호조치를 중요시책으로 다루고 미의회에서도 특혜관세와 연관시켜 그 보호를위한 입법까지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illegible] 그런 미국측요망이 없다하더라도 내외국인을 가릴것없이 정당한 절차에의해 등록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업소유권은 의당 보호돼야 할것이다.

대외지향적인 개방경제체제 아래선 공업소유권은 선진국일수록 서로 존중하는 유·무형의 재산권이라 할수있다. 따라서 商標든 特許든 그 권리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상호주의 원칙에의해 우리측 상표와 특허 또한 외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게된다. 또 최악의 경우엔 국제소송사태에 휘말리는가 하면 상대국가로부터 상응한 행정규제와 법적인 보복조치를 당하게될 가능성마저 없지않다.

물론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로선 화학물질발명에 대한 특허권보호나 저작물·번역판따위에 관한 일률적보호조치를 단시일안에 갖추기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없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실정껏 보호요망을 검토, 대책해야 할것이다.

知的소유권은 그것을 창안·창작하거나 응용·개발한자(개인 기업또는 연구소)에게 권리보장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응당 있어야 한다는 점보다 크게생각하면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과 끊없이 왕성한 발명및 창조의 의욕을 북돋는데있어 가장 요긴한 제도적장치로서 공업소유권의 존재가치는 비할수없이 중한것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곧 財貨와 같다. 이런 意義를 살리고 그에 상응한 권익을 인정, 보다큰 아이디어의 보람을 찾게하는 작용을 공업소유권보호에서 기대케 되는것이다.

한데도 국내일부업자들은 상표및 특허권을 너무 허수히 생각하며 고의 또는 사기성까지 내포된 동기에서 남의것, 특히 유명상표등을 함부로 사용해 왔다.

그런 가운데 신용과 품질을 바탕으로한 자기상표를 주지시켜 려는 노력은 시들해지기 쉽다. 外製選好에 편승, 남의 유명메이커상표를 사용, 사람들을 속이는 따위 떳떳치 못한 일을 더욱 계속 자행하게 된다. 그런 레테르의 상품을 만들어 외국시장으로 들고나갈때 망신을 빚게 된다.

정부당국은 우리사정과 국내 소비자 보호문제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업소유권보호를 피하는한편, 이미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외국에서 망신의 씨앗이 되고있는 상표도용행위를 지체없이 단속, 대책해야 할것이다.

政局往來

常委지망에「所信派」「善處派」「실속派」등 각양 각색

◆대공원안나무 [illegible] 심도록

全斗煥대통령은 5일 낮 植木을 끝낸뒤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에서 獨林家, 새마을지도자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造林과 育林의 중요성등을 강조.

全대통령은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造林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당부하면서 『이렇게하면 학생들에게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造林에 대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설명.

全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승용차편으로 서울대공원일대를 돌아보고 대공원관리사무소장실에서 金聖培서울시장으로부터 대공원건설현황을 보고받은뒤 『대공원안에 심을 나무는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樹種을 골라 심도록하라』고 지시.

全대통령은 또 대공원안에 수용될각종동물의 사육계획을 보고받고 『전문가들을 동물수입국에 파견해 사육법등을 익혀 동물사육을 잘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與野政黨등 각기植木행사

국회와 民正·民韓黨은 植木日인 5일 각각 서울시와 市近郊를 찾아 植木행사.

丁來赫의장등 국회사무처직원 7백여명은 이날 의사당주변에 6천50그루의 나무를심었고 丁의장은 의사당 현관 오른편에 60년생 朱木한그루를 紀念植樹했는데 사무처는 특히 오는가을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대비, 무궁화 1천여그루로 무궁화단지를 조성했다.

民正黨은 權翊鉉사무총장, 鄭石謨정책위의장등 당직자, 의원, 사무처요원등 3백여명이 경기도坡州郡汶山邑의 野山7천5백평에 잣나무7천5백그루를심었는데 4일 지역구에서 上京한 陳懿鍾대표위원은 중앙정치연수원 개강식 참석때문에, 李鍾贊총무는 소속의원들의 상임위배정작업때문에 각각 不參.

또한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林鍾基총무등 20여명의 소속의원들과 사무처요원들이 海公 申翼熙선생, 維石 趙炳玉박사, 高大구내에있는 仁村 金性洙선생의묘소를찾아 30년생 향나무한그루씩을심고 참배했는데 국민당은 이날 별다른 植木행사를 갖지 않았다.

◆民正常委…內務委가 최고 競爭率

대다수의원들이 내무·재무·농수산위등 人氣常委를 희망하고있는가운데 民正黨은 6일에 있을 議員세미나석상에서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

民正黨은 그동안 소속의원들로부터 希望常委의 신청을 받은결과 경쟁률이 가장높은 곳은 내무위로 정원14명에 28명이 지망, 2대1의경쟁률을 보였고 그다음이 재무·농수산위의 順으로 나타난반면 定員이 9명인 법사위는 1[illegible] 8명으로 정원미달상태.

民正黨은 이미 지난번 黨職개편에서 소외된 의원들에게 희망常委를 우선배정하고 中執委員등 간부들은 지망률이 적은 상임위에 양보한다는 원칙을 세운바있는데 이에따라 물러나는 丁來赫의장과 李鍾贊총무는 「외무위」에, 李載灐前대표와 權翊鉉사무총장은 국방위에 배정할계획이며 국방·경과·보사위가운데서 배정을 희망한 陳懿鍾대표위원은 보사위로 결정될듯.

한편 이번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지망양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곳을 가겠다고 희망을 써낸 「所信派」와 黨의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써낸 「善處派」, 그리고 제1지망에는 경쟁률이 낮은 常委를 쓰고 2·3지망에 경쟁이 치열한 常委를 적어내 1지망으로 굳히려는 「실속派」까지 있었다고.

◆民韓의원들, 內務·財務집중志望

民韓黨은 오는국회에 앞서 그동안 소속의원들로부터 희망常委를 접수한 결과 신청의원 56명중 32명이 정원9명인 財務委와 內務委를 집중 지원.

총무단이 5일 현재 접수한 신청결과를보면 소속의원 81명중 당무위원과 初選의 許景九 朴寬用 鄭良叔의원을 제외한 56명이 신청했는데 지망을보면▲財務17▲內務15▲農水産6▲文公5▲建設4▲法司4▲國防3▲商工·交通 각 1명이며 外務·經科·保社委는 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실정.

특히 현 內務·財務·農水産委의 원들은 전원 유임을 희망했는데 申鉉洙의원은 1、2、3지망 모두를 文公委, 韓光玉의원은 1、2지망을 內務委, 李英駿 朴完奎 金台植의원은 1、2지망 財務委를기재하기도.

◆民正, 會館사무실 再配定작업

5일 소속의원들의 국회常任委배정작업을 끝낸 民正黨은 물러날 丁來赫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의원회관 사무실 配定작업에 착수.

民正黨은 물러나는 상임위원장들은 後任위원장들이 사용했던 의원회관사무실에 入住, 맞바꾸도록하는 한편, 丁의장은 부의장으로 옮길 尹吉重의원의 방을 사용토록 할방침.

그러나 李台燮상공 金淑鉉법사위원장은 후임위원장이 水平이동하는 바람에 별도로 배정하고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된 金宗鎬내무위원장은 예결위원장실과 재무위원장으로 결정된 鄭在哲의원의 회관사무실을兼用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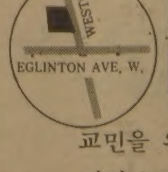
한편 상임위원장內定者들은 위장修正(?)을 위해 曺秉完국회사무차장, 趙琮鉉국회도서관장등 회의전문가들을 찾아가 상임위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있는데 鄭東星교체위원장후보는 지난 2년간의 교체위 회의기록을 몽땅 갖다놓고 공부하기도.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나전칠기
제작·수리
◎맞춤전문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 김석환올림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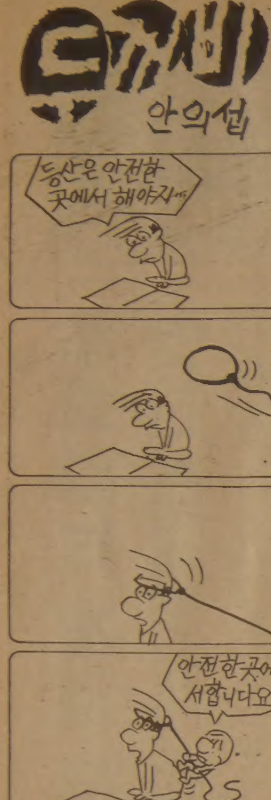
칼빈신학교
이사회소집공고

본 이사회 83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저 하오니 소만 참석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기 —

일시 : 1983년 4월16일(토) 하오1시
장소 : 칼빈신학교 강당
252 BLOOR ST. W.
교육회관 332호
안건 : 과년도 경과보고
임원개선
신년도예산안
기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캐나다노회 칼빈신학교
이사회 이사장 조진동



프로야구場 史上첫 "安全사고"

"사인공세"… 어린이 떠밀려 重傷

蠶室球場서

◇"그래도 야구가 좋아…" 열광적인어린이 야구팬 韓聖洙군이 야구장의 안전대책부재로 중상을입고 입원했다.

프로야구장스탠드에서 어린이회원이 운동장으로 떨어져 다리가부러지는등 전치8주의 중상을입는 사고가발생했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프로야구사상 첫안전사고인데 각프로야구단이 어린이회원을 경쟁적으로 모집, 경기가 있을때마다 운동장은 어린이팬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것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있지 않음을 드러낸것이다.

중상을 입은 어린이회원은 韓聖洙군(12·도성국교5년)으로 韓군은 83년도 프로야구개막식이 열렸던 지난2일하오 서울蠶室구장에서 개막식후 OB대MBC의 첫대전을 외야석에서 관람했다.

OB베어스 어린이회원인 韓군은 게임이끝난뒤 앞에있던 팬들이 선수들의사인을받기위해 몰려내려가자 맨앞쪽으로 밀려갔다가 다른어린이들에 떠밀려 외야스탠드에서 운동장으로떨어져 오른쪽 다리뼈(경골골절)가 부러지는등 전치8주의 중상을입고 5일 강남서울시립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프로야구장은 출범첫해인 작년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관리했었으나 금년부터는 구단별 독립채산제에 따라 각구단이 홈구장관리와 경비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사고당일은MBC측이 관리를 맡고있었다.

KBO에의하면 각프로구단은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구장에는 구단이 고용한 몇몇 경비원과 아르바이트학생들만을 배치, 질서유지와 좌석안내등을 맡도록 해 스탠드의 대형사고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것이다. 또한 각종사고에 대비한 의료진이나 구급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프로야구 6개구단은 고객유치를위한 방안의하나로 어린이팬회원을모집 현재 전국적으로 30만명이넘는 어린이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留學生시험 採點잘못… 不合格

억울한被害 4명늘어

금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으면서도 채점착오로 불합격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의 국비유학생 선발과정과 채점결과에대한 감사원 감사에의해 밝혀졌다.

감사결과 불합격자 4명은 지난1월19일 실시된 국비유학생선발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 채점실수로 합격권에드는 점수인데도 불합격자로처리돼 2월10일 실시된 2차시험에 응시하지못했다는것.

이에따라 문교부는 이들4명에대해 오는11일 2차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문교부는 지난2월28일 금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97명을 발표했다가 林在正의원이 채점착오사실을 지적, 3월7일 2차시험까지 치르고도 채점실수로 낙방처리된 4명을 추가합격시켰다.

營養劑주사에 방범대원숨져

【釜山】4일밤10시께 부산시東萊區巨堤2동867의5 삼덕의원에서 東萊경찰서巨堤파출소근무 방범대원 김중길씨(42)가 간호보조원 정이숙양(22)으로부터 영양제주사를 맞고 갑자기 부작용을 일으켜 숨졌다.

삼덕의원 간호보조원 정양에 따르면 이날 밤10시께 김씨의 부탁을받고 김씨가 갖고온 영양제주사약 2병을 놓아주었는데 5분쯤지나자 갑자기 거품을내뿜어 인근 광혜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것. 【聯】

商業지역 地主들 所有權이전 꺼려

【昌原】경남昌原市가 올해부터 중심상업지역및 외동의 단독택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지주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5일 시에따르면 지난1월부터 현재까지 외동단독택지(필지당 75평에서 1백평)는 5백14필지중 81%인 4백98필지가 등기를 마쳤으나 도시발전의 중심이될 중심상업지역(필지당 8백30평에서 9백23평)은 80필지중 39%인 31필지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있다는것.

이같이 도시발전의 구심점이될 중심상업지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진한것은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1천만원이상이나 되는등 부담이 많고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지주들끼리의 의견대립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聯】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남한산성 큰불

2개능선 태우고 계속번져

【城南】5일하오3시15분께 경기 廣州郡西部面 甘2里와 城南市創谷洞 경계지점인 남한산성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능선2개를 완전히태우고 정상을향해 계속 번지고있다.

불이나자 城南市와 廣州군청직원및 경찰·소방대원등 1백여명이 소방차1대를동원 진화작업을 하고있으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는데다 산이 60도 경사로 험하고 20~30년생 소나무와 가시덤불·낙엽등에 계속 불이번져 접근하지 못하고있다.

또 진화작업을 위해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됐으나 불길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불은 城南市創谷洞에 있는 남한산성 매표소까지 접근, 성곽을 향해 번져가고있다. 【聯】

2백46만명 植樹 어제 식목일맞아

5일 전국에서는 공무원·학생등 모두 2백46만명이 1만8천㏊에 2천7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식수운동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올림픽식수 2천7백만그루, 일반조림 1억6천9백만그루등 모두 10만8천㏊에 1억9천6백만그루를 심기로 하고 시도별로 헌수창구와 나무시장을 설치, 헌수및 자매결연마을에 묘목보내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北傀, 入港외국船員들에 金日成「圖書」強要

【서울=聯】金日成의 71회 생일을 앞두고 또한차례 개인우상화소동을 펼치고 있는 北傀는 北韓의 주요항구에 정박중인 外國의선원들에게 金日成저서를 읽을것을 강요하는 한편 도서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이란 집회까지 열것을 使嗾하는 등으로 외국선원들의 빈축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北傀방송들은 최근 淸津·海州·南浦항등에 정박중인 키프러스, 파나마, 日本선박 선원들이 金日成의 71회생일을 기념하기위해 金日成의 덕성이 수록된책을 읽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발표하는연구모임을 조직하고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北傀는 주요행사때마다 北韓항구에 정박중인 외국선적선원들에 金日成父子우상화내용의 서적을 읽기와 함께 이들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작해 오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5行뉴스

◆國校교사, 용달차에 참변

【木浦】4일밤 8시40분께 전남 務安郡 玄慶面五柳里앞 務安 海際간 국도에서 海際국교교사金鍾桂씨(37)가 海際화물소속 전남7가 7086호 용달차 (운전사 李相吉·31)에 치여 숨졌다. 【聯】

◆자전거·트럭충돌… 絶命

【光州】4일밤 10시30분께 光州市北區牛山洞 삼양식품앞길에서 건영화물소속 경북7사1309호 (운전사 宋仲儀·22·大邱市北區伏賢洞320의1) 8톤트럭이 자전거를 타고가던 金始中씨(47·光州市 北區豊鄕洞2의63)를 치어병원으로 옮겼으나 5일 0시50분께 숨졌다. 【聯】

新入生환영회 "變則"

大學마다流行… 仁壽峰희생도 난생 첫 岩壁등반길

身分에 벗어난 "豪華술판"도

새벽 歸家·과로로 授業 지장

대학신입생 환영회가 변측 경향을 띠고있다.

우선너무많다. 환영회가 학과별, 고교선배별, 서클별등으로 줄이어 시리즈로 계속되는게 요즈음의 유행. 또건전성이 의심되는사례도잦다.

매일밤 새벽에 귀가하도록 술을 많이 마시게 한다가하면 디스코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서 호화판으로 환영회를 벌여 학생신분을 벗어나기도 하며 학교의 지도권역을 벗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仁壽峰의 참사도 신입생환영등반이 사고를 일으킨 예에 속한다.

학부모들은 환영회는 한두번에 몰아서 끝내는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신입생들의 건강이나 학업도 중요하고 선배들의 틀림처리 문제 해도 줄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있다.

仁壽峰조난사고의 경우 사망자를포함한 전체 조난자 18명중 8명이 신입생들로밝혀졌는데 이들은 암벽등반의경험이 전혀없이 사고당일 선배들의 권유에따라 仁壽峰등반에 나섰다가 조난을 당했었다.

특히 조난자중 희생된 文眞植군(20·成大전자공학과1년) 南宮埍군(18·〃역사철학과1년) 朴鍾珏군(18·建大입학과2년)등 3명은 생전 처음 암벽등반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文군의 어머니 金德禮씨(52)에 의하면 아들이 평소 운동도 잘 못하고 추위를 많이 타 사고전날 산행을 적극 말렸는데 『선배와가니 문제없다. 걱정말라』며 집을나섰다는것. 文군은 암벽등반은 커녕 도보산행마저 한번도한 적이 없었다.

한편 재학중인 선배들이 신입생들을위한 환영회를 열면서 무리하게 술을 강요하거나 담배를 강권하는바람에 며칠씩 외박하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사례도 많다.

또 환영회가 검소한 분위기가 아닌 나이트클럽 고고클럽등을 이용하게돼 비교육적이고 학생들에게 큰부담을주는 사례도많은데 지난2일하오7시 서울鍾路區明倫洞 J음식점2층에서 열렸던 지방 모고등학교동창회의 신입생 환영회는 시종일관 신입생들에게 술잔을돌리는 것으로행사가 치러졌다.

전체참석자 40여명중 신입생7명은 몸을가누지 못할만큼 술에 취했고 가까운 생맥주집등을 3차로 절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는바람에 다음날 학교를 결석했다는것.

최근대학생들의 신입생환영회는 주로1차로 중국집·2차로 생맥주집, 3차로절대부가있는 술집 또는 나이트클럽이다.

금년에 입학, Y대 화공과에 다니고있는 金모군(18)의 한부모(54)는 최근열흘 사이 아들이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매일밤자정이넘게 술에 곤드레가되어 귀가한다고 말하고 아들이 『학교선배들의 강요에 환영행사에서 빠지기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C大앞 중국집에는 지난14일부터 19일까지 매일 1~2회씩 신입생환영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신입생 4~5명을 거느리고 20~50명씩몰려온다는것.

주인金모씨(41)는 『환영회가 끝날때쯤이면 잘든학생이나 토하는 학생들도 생겨나는데 선배들이 억지로 끌고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환영행사에 지도교수가 참석, 건전하고 유익하게 행사를 치르는 사례도 적지않다.

Y대학응용통계학과의경우 지난달중순께 담당조교수가 신입생과 재학생을 인솔, 서울근교인 日迎으로가 1박하면서 신입생환영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저녁식사후 자기소개와 취미, 특기등을 공개한후 여흥프로와 마지막 캠프파이어로 환영회를 끝내 아무말썽이 없었다.

대학의 한 학생활동관계자들은 『이같은 신입생환영회가 자칫하면 대학생활의 첫걸음을 어둡게 시작하게할 우려가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弘益大 기획실장 金龍來교수(교육심리학)는 『신입생환영회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소속학과의 성격과전통을 알려줘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오리엔테이션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신입생환영회는 선후배간의 술자리목적과 단지 놀아나는 자리로만 그치는경우가 있어 애초의 목적과는 동떨어지기도한다』며 『대학생활은 절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갈등이 있어야 하지만 내에서 이뤄지는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교외활동일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朴榮基기자】

"못다핀 꽃들 고이 잠들라…"

仁壽峰 희생자7명 어제 永訣式

仁壽峰조난사고로 숨진 7명의 희생자들에대한 영결식이 5일 서울城北區 吉音洞 한미병원영안실에서 3차례에 걸쳐 거행됐다.

이날 상오10시文眞植군(19·전자공학과1년)등 成均館大학생4명의 영결식이 同僚학생등 4백여명이 모인가운데있었고 낮12시 建國大 朴鍾珏군(22·입학과3년)의 영결식, 하오1시에는 金仁杰군(17·光云공고2년)과 朴徵男씨(27·일반인)등 2명의 영결식이 각각 거행됐다.

이날 成大生의 영결식에서는 사고경위및 약력보고에 이어 함께조난됐다가 구조된 具乘徹군(21·成大토목과3년)의 영결사가 있었는데, 具군은 『육신은 비록 한줌의 흙이지언정 본받아야할 강직한정신과 죽음의 일각까지 산친구를 감싸준 그따뜻한인간애를 어찌잊으리오』라고 말해 장내를 오열에휩싸이게했다.

영결식이 끝나자 학생6명은 각각 모교앞흙지나 경기 高陽郡 碧蹄화장장으로 향했는데, 建大 朴군의유골은 朴군이 조난, 사망한 仁壽峰 취나드B코스에 뿌려졌다.

한편 4일 구조된 11명가운데 金丙鎬씨(29·서울道峰區雙門洞217의88)만 동국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이고 나머지 10명은 건강을 회복, 모두 귀가했다.

◇仁壽峰조난사고로희생된 成大生4명에대한 영결식이 5일상오 한미병원에서 가족·친지등의 오열속에거행됐다.

優秀의약품 제조·관리위해 올 上半期중 시범業所선정

保社部 방침

보사부는 5일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85년까지 전의약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KGMP(한국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실시키로하고 상반기중 시범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적격업소의 구체적인 기준설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상반기중 선정될 시범업소는 전체 3백2개 제조업체의 10%수준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이들 시범업소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제한을 완화하는한편 연2회의 제품검사·시설조사를 1회로 완화하는등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GMP는 지난69년 WHO총회때부터 가맹국에대해 GMP제도를 채택하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77년 KGMP를 제정고시, 업체의 자율적 실시를 권장하고있으나 이를전폭적으로 도입한업체는 아직없는 실정이다.

「나무博士」

50년을 나무와함께산 玄信圭翁

심는 精誠보다 가꾸는 사랑 중요

산림녹화가 제대로되면 그건 富國이다. 때문에 모든나라가 오래전부터 나무를 정성껏 가꿔왔다. 우리나라도 해방후와 6·25동란으로 황폐해진 산을 푸르게하기위해 후반이지만 열심이다.

나무학자 玄信圭박사(72·사진)는 식목일인 5일 어김없이 들로나갔다.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고른뒤 다시흙을덮고 밟는 노구의 동작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있다. 『지금도 나무만 보면 숙연해지고 무언의철학자나 설교자같이 느껴진다』는 그가 처음 설자리를 찾은 어린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어찌 평범할수 있으랴.

45년 모교인 水原농전교수로부임, 지난77년 서울大농대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나무박사로 더잘 통한다. 50년을 나무와살았고 그동안 개량한 나무만도 7백여종이 넘는다.

부친의 강권으로 뜻밖의 농학도가 됐으나 우연히 접한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려거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다하라』는경귀에 강렬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때부터 나무는 그의 전부가됐다.

우리 산야에 많이 자생하는 은백양과 水原근교에서 자생하던 수원사시나무를 교배해 개발한 잡종강세를 개발한 玄사시나무는 그의 대표적 작품이고 이태리포플러등은 뒤늦게 출발한 정부의 치산녹화정책의 효과를 높여준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수종에대한 경제성을 놓고 발론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붉은 산야를 푸르게할 수있었다는 점은 일단 높은 평가가 따른다.

지금나무박사의가장큰걱정은서울에 나무가없고 나무를심을줄만 알지 가꿀줄을 모른다는 점이다.

『워싱턴은 1인당 녹지대가 45㎡이고뉴욕은 19㎡지만 서울은겨우 2㎡다. 참나무를 고유산림으로 가꿔야하고 단순림을 혼합림으로 바꿔야하며…』등등 걱정이 끝이없다.

『나무는 어린아이 같아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낳아놓기만하면 어린아이가 훌륭하게 잘자라는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도 정성과 투자가 따라야한다 이것입니다』 【宋大洙기자】

1982년도 결산및 배당실시 공고

— 결산(1982.1.1~1982.12.31)

대차대조표

〈자 산〉	
현금계정	209,700
정기예금	410,000
미수이자	28,802
선지급금	550
중앙회예치금	61,860
대출금	2,496,278
고정자산	11,505
총자산	3,218,695

〈부채및 자본〉	
은행차입금	5,879
세금미불금	2,380
지불계정	33,112
예치금	2,936,122
출자금	227,009
적립금	7,733
잉여금	6,460
총부채및 자본	3,218,695

손익계산서

〈수 입〉	
대출이자	380,336
예금 이자	55,035
기타	7,399
총수입	442,770

〈지 출〉	
예금이자	298,427
대손충당금	16,136
광고비	9,044
보험료	3,121
일반사무비	4,634
전화비	1,567
인건비	52,800
임대료	7,000
감가상각비	3,427
교육비	460
이사회비	2,819
중앙회비	1,429
감사비	4,504
기타	11,618
총지출	416,986
순이익금	25,784

= 배당실시

1. 배 당 율 : 년 5%
(1982년 12월31일 현재 출자금잔액)
2. 지불방법 : 조합원 각위 출자금 구좌에 입금
(1982년 12월31일이후 탈퇴 조합원은 현금지불함)
3. 주소변경하신 조합원은 전화로 신주소를 곧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W. ☎ : 533·9387, 9388

"서울一戰 질수없다"

보리-코너즈 어제來韓 오늘저녁 名勝負 다짐

"후회없는 게임 보이겠다" 보리
"멋진 플레이로 팬에 보답" 코너즈

보리냐 코너즈냐. 윔블던 5連覇의 테니스황제 비외른·보리(26·스웨덴)와 82년 최강 지미·코너즈(30·미국)간의 大決戰이 오늘하오 7시반 잠실실내체육관 특설코트에서 벌어진다.

보리와 코너즈는 5일밤내한, 하이야트호텔에 여장을 풀었으며 이날9시 한국일보社가 마련한 환영파티에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당일인 6일하오 잠실체육관에서 연습을갖고 7시 입장식에 이어 7시30분부터 경기(5세트 3先勝制)에 들어간다.

메인·이벤트에앞서 하오 5시부터 지난해 뉴델리아시안·게임 복식 金·銀메달조인 金春浩(23·현대) 李우룡(22·″)―全英大(23·대우) 宋東煜(21·울산공대)의 스피디한 복식오픈경기가 펼쳐진다. 부인과함께내한한 보리는 세계최고의 권위를자랑하는 윔블던대회5連覇, 프랑스오픈 6회우승의 신화적 선수.

코너즈는 82년 US오픈, 윔블던대회 우승으로 재기한 노장이다.

보리는 이번 서울경기와 일본 산토리컵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예정이며 이번 서울대결은 서로 양보할수없는 일전이다.

살인적인 톱스핀과 강서브를 무기로하는 보리는 5일 金浦공항 도착후『지미·코너즈와는 지난6~7년간 좋은경기를 가졌다. 나의 마지막 테니스 여행이어서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타법의 공격형인 왼손잡이 코너즈는『뜻깊은 경기가 될것이다. 초청해준 한국국민들에게 멋진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82 국제테니스연맹(ITF)월드·테니스誌등에서 랭킹1위로 선정된 코너즈는 금년들어서도 몰슨·테니스대회, 테니스주 멤피스의 실내선수권대회등서 계속 우승, 절정기의 실력을 과시하고있다. 두 선수는 6일상오 11시 하이야트호텔서 공식기자회견을 갖는다.

◇코트밖에서는 「좋은사이」 보리(左)와 코너즈는 코트에서는 양보를 모르는 라이벌이지만 코트밖에서는 다정하다.

보리·코너즈 親善테니스 世界의 팬들이 지켜본다
7개國에 TV中繼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는 83 보리―코너즈 초청 테니스 대회가 오늘(6일)하오 7시반 잠실체육관 특설코트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이 대전은 캐나다·홍콩등 2개지역에 TV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일본·이탈리아·브라질·콜롬비아·사우디아라비아등 5개국은 녹화중계, 멕시코·태국·인도·호주도 TV중계교섭이 진행중에 있어 정교하고 박진감넘치는 두 선수의 플레이는 전세계의 네트웍을 타고 팬들을 매료 시킬것입니다.

협찬 코오롱스포츠 Slazenger

―한국일보社―

勝負예측못할 永遠한 라이벌

보리-코너즈戰을 앞두고
守備·공격형의 對決 볼만
"좋은競技는 觀衆이 만든다"

비외른·보리와 지미·코너즈는 영원한 라이벌이다. 74년 존·뉴컴, 로드·레이버등 노장들을 물리치고 화려한 프로인생을개막했던 코너즈는 보리의 등장으로 치열한 정상다툼을벌여야했다. 결국 보리가 코너즈를밀어내고 그의시대를 이었지만뒤늦게 코너즈가 정상에 복귀, 이들의 싸움은 이제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혼전이되고있다.

81년말까지 공식경기전적은 보리가 15승8패로 우세하지만 지난해 시범경기에서는 코너즈가 3승1패로 우위였다.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코너즈가 3-2, 리치먼드에서는 3-1로 이겼고 9월의 오타와시범경기서는 보리가 3-2로 이겼다. 10월 몬트리올에서는 코너즈가 2-0으로 다시 뒤집었다.

특히 매세트가 듀스, 타이브레이크로 이어진데다 라이벌의식까지 크게 작용, 이번서울대전도 승부를 예측할수없는 접전이 될것이다.

이들의 플레이는 물론 스타일에서도 서로 판이해 팬들의 흥미를 돋우고있다.

톱스핀타법을 주로하는 보리는 베이스라인서의 그라운드 스트로크와 강한 서비스에 승부를 의존한다. 그러나 네트플레이는 10개에 2~3개밖에 성공하지 못할정도로 약하다.

서브후 네트에 대시하는 코너즈를 올라운드 플레이어라한다면 보리는 수비형이라 할수 있다.

결국 이번대전은 톱스핀―플랫타법, 수비형―공격형의 대결이다.

지금도 가장 불가사의한것은 어떻게 스트로크를 위주로하는 보리가 잔디코트인 윔블던테니스에서 5連覇할수있었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테니스의 층이 두터운 상황에서는 다시 이룰수없는 신화로 평가되고있다.

보리가 76년 윔블던서 첫우승하기 이전까지만해도 볼이 빠른 잔디에서는 수비형은 좋은성적을 내기어렵고 서브·앤드 대시의 공격을 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리는 빠른 발과 볼센스, 서브포인트로 이를 해냈다.

코너즈는 보리에대한 자신의 전략을 이렇게말한다.

『보리와 싸우려면 랠리를 15~20회이상 계속해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각도있는 스트로크를 치면 보리의 톱스핀이 네트가까이 짧게 떨어지고 이찬스를 잡는 것이다』

한편 보리는『코너즈는 거북한 상대이다. 처음 코너즈와 싸울때 그는 힘과 정신력이 뛰어나 이기기 힘들었다. 그러나 톱스핀만 하지 않고 슬라이스, 연타, 쇼트볼등 다양한 플레이로 그를흔들었다. 성공적이었다. 그후자신감을갖고 강타를칠수있었다』

두선수의 라켓을 비교해보면 보리는 도네이 (DONNAY) 4백12g짜리를 쓰며 그립은 4½" 백핸드에 두손을 쓰기때문에 엑스트러·롱을 사용한다. 라켓은 1번에 1백50개, 줄은 3백개를 소모한다고 한다.

코너즈의 라켓은 윌슨(WILSON)T2000, 3백90g, 4 5/8인치.

줄의 텐션 (Tension)은 코너즈 70파운드, 보리가 80파운드 (국내선수는 최고 65파운드) 인데 보리가 줄을단단히 매는것은 손목의 힘이 세고 볼의 컨트롤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이다.

좋은경기는 관중이 만든다는 이야기가있다. 질서정연한 觀戰을 팬들에게 부탁 드린다.

金聖培【대한테니스협회국제이사】

테니스선수亡命 허용에 中共서 美에 強力항의

【홍콩聯合=聯合】 미국주재 중공대사관은 4일 중공테니스스타 후·나(19)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양국관계를 해칠 것이라면서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홍콩에서 수신된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워싱턴주재 중공대사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 『정치적 처벌위험이 전혀없는 후·나양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여러차례에 걸친 중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명허용조치를취한것은『양국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며 그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4일 미법무성은 중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나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야구

「黃金의 팔」잇단受難
MBC 李源國도 맥못춰
三美, 또崔東原맹타…2連勝

억대의 계약을 체결, 황금의 팔을 자처하던 투수들이 잇달아 수난을 당하고있다. 멕시코에서 돌아온 李源國은 5일 서울잠실구장서 벌어진 OB-MBC 3차전에 처음 등장, 5회초 MBC青龍의 두번째 구원투수로 나섰으나 5회동안 18타자에게 14타수 5안타 1포볼을 맞아 3점(자책1점)을 허락, 역전승을 바라던 MBC의 기대를 저버렸다.

5회초 무사1루에서 구원등판한 李源國은 OB 2번 韓大化에게 좌중간적시 2루타를 맞아 1-1의 대등하던 게임을 열세에 빠뜨렸다. 李源國은 OB타자들에게 받아치기 알맞은 스피드의볼을 큰변화없이 투구, OB 4번 金宇烈에게 우전 적시타, 5번 申慶植에겐 센터희생플라이를 허용, 5회초에만 3점을 잃어 패전의 쓴맛을 마셨다. OB는 7회초 다시 2안타 1포볼로 李源國을 공략, 결승점을 얻어 5-4로 승리했다.

부산경기서는 홈팀 롯데 에이스 崔東原이 데뷔전의부진을 씻으려는듯 선발로 나섰으나 6회동안 三美의 18타자에게 16타수 7안타 1포볼 1데드볼로 4실점 3자책점을 허용, 패전투수로물러났다. 三美는 2회초 5번 崔洪錫의 솔로호머로 기선을 제압, 3·4회에 집중5안타로 崔東原을 다운시켜 4-1로낙승, 2연승으로 단독선두를 기록했다.

해태는 광주경기에서 수비난조의 三星에 4-1로 승리했다.

◇5일전적

◆잠 실

OB (2승1패)	000	130	100	5
MBC (1승2패)	100	001	110	4

◆홈런=金貞洙 (6회·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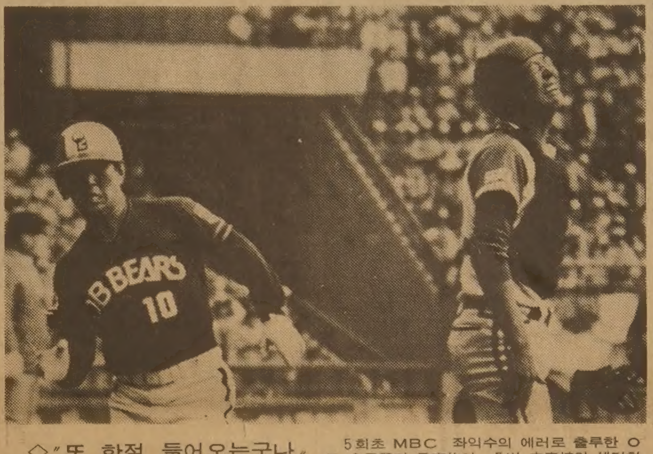
◆부 산

삼미 (2승)	012	100	000	4
롯데 (2패)	000	001	000	1

◆홈런=崔洪錫 (2회·삼미) 金用熙 (6회·롯데)

◆광 주

삼성 (1무1패)	000	010	000	1
해태 (1승1무)	000	103	00×	4



◇"또 한점 들어오는구나" 5회초 MBC 좌익수의 에러로 출루한 OB 3루주자 尹東均이 5번 申慶植의 센터희생플라이로 홈인, 4점째를 올리고있다. 오른쪽은 MBC포수 金容雲.

외로운鬪病 崔寬洙감독
人生에서의 逆轉勝다짐

◇「역전의 명수」群山商을 고교야구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던 崔寬洙감독.

●고교야구의 명문 群山商을「역전의 명수」로 키워놓은 崔寬洙감독(42)이 불치의 병때문에 천직으로 삼았던 야구계에서 물러나 야구가 아닌 세계에서 재역전의 기사회생을 노리고있다.

群山商야구감독 시절인 지난76년께부터 오른쪽 팔이 갑자기 마비증세를 일으켜 고생했던崔씨는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복디스크로 단정, 물리치료만 해주었다. 물리치료를 계속해온 崔씨는 통증이 심해지자 78년10월 서울대의대 부속병원 신경과에 입원, 진단결과 불치의 병인 파킨슨씨병으로 판명되었다.

파킨슨씨병은 뇌세포조직의 이상현상으로인해 인체의 운동신경이 파괴돼마비를일으키는 무서운질병으로 수술에 의한 치료법이 임상연구에서 시도되고 있을뿐 아직은 완치가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병세가 악화되자 崔씨는 야구볼모지 湖南에 야구의 돌풍을, 또한 무명의 群山商에게는『역전의 명수』라는 화려한 닉·네임을 안겨준후 78년12월 그라운드에서 사라져 직장인 企業銀行 群山지점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으면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현상을 일으켜 동료직원들의 도움으로 일찍 퇴근하곤했다.

群山市明山洞141에 4백만원짜리 전세집에서 살고있는 崔씨에게는 약값이 큰 부담이었다.

崔씨는 지난3월12일 21년동안 근무해오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崔씨는 3천여만원의 퇴직금과 직장에서 대출해준 2천만원을 밑천으로 시내 榮洞파출소옆에『홈런컴퓨터세탁소』를 차렸다.

세탁소의 경영은 부인吳成子씨(42)가 맡고있고 崔씨는 집에서 쉬고있다.

崔씨는『야구에서 역전승을 창조하듯 인생에서도 역전승을 거두고 싶다.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든만큼 돈을모아 美國에서 수술을 받는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崔씨가 세탁소를 차리자 중소기업은행 群山지점(지점장 申順浩·45) 직원 30여명은 직원들모두가 홈런세탁소를 단골세탁소로 정하는 한편 은행을찾아오는 고객들에게도 자동세탁소의 안내장을 일일이 나눠주고있다.【群山=鮎】

雄飛, 최강金星꺾었다
실업배구聯盟戰

金星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는가. 오랫동안 국내 남자배구정상을 차지했던 金星이 실업배구 1차연맹전 2일째 (5일 장충체) 남자B조 경기서 패기의 雄飛에 의외로 3-1로 역전패, 지난 3월 종합선수권대회 결승서 京畿大에 패배했던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

이날 雄飛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전원이 짧게머리를 깎고 출장한 선수들의 놀랄만한 패기와 과학적인 훈련덕분.

嚴秉德雄飛감독은『우리선수들은 눈을 감고도 金星의 공격및 수비포메이션을 알수있을만큼 상대방을 철저히 연구했다』고 밝혔다.

첫세트를 빼앗겼던 雄飛가 제2세트부터 경기를 뒤집는데 선봉장역할을 한것은 단신 李仁浩(18).

李는 제2세트 4-4타이에서 상대블로킹을맞고 튀어나가는 레프트강타로 균형을 깨고 4득점, 게임의 주도권을 잡는 주역을 담당했다.

또한 李는 190㎝의 高泰辰과함께 金星주포 姜斗泰를 블로킹으로 철저히 차단하는등 수훈을 세웠다.

金星의 주공 姜斗泰는 어깨부상이 심한탓인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다.

雄飛는 지난해 5월군복무중이던 姜斗泰의활약으로 金星을꺾은이후 10개월만에 또다시 金星을꺾는 수확을올렸다.

한편 鮮京合纖―泰光産業의 여자B조경기서는 鮮京이 3-1로 승리했다.

◇제2일전적

▲남자B조

웅비 (1승) 3 (15-4, 15-3, 15-8, 12-15) 1 금성 (1패)

▲여자B조

선경합섬 (1승) 3 (15-5, 15-7, 15-3, 6-15) 1 태광산업 (1패)

한국洋弓, 亞洲석권

한국양궁팀은 4일 홍콩에서 폐막된 제3회 아시안컵궁도대회에서 남녀단체전및 개인전서 우승을 휩쓸었다.

한국팀은 남자 단체전에서 총3천6백21점으로 3천5백77점을 마크한 일본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단체전서도 총3천6백49점으로 우승, 2위 중공(3천5백49점)을 1백점이나 앞질렀다.

또 한국은 남자개인전에서 金永雲이 1천2백29점으로 우승했으며 여자개인전서는 金珍浩(1천2백43점)와 朴英淑(1천2백18점)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번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공 인도네시아등 8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회에서도 남녀단체와 여자개인전에서 우승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張吉山 <170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8)

『기도를 드리지 보름이 되던날에, 그날도 중화를 지어서는 우리가 공을들이던 암벽 아래의 반석에다 올렸지요. 바로 지척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이 있었고 개천 건너편에는 우리가 기거하는 암굴이 있었읍니다. 반석위에다 밥을 천신하고서 그자리에 엎드려 삼배를 드리고 일어나 보니까 밥주발은 그대로인데 밥이 말끔히 비워져 있더란 말이지요. 나는 놀라서 주발을들어 살폈읍니다. 밥알한알 남기지 않고 물로 씻어낸듯이 싹 비워져 있었읍니다. 뭔가 짐승이 물어갔다면 찌꺼기도 흩어졌을것이고 소리도 들렸을텐데 절세번하는 사이에 없어졌으니 도무지 귀신이 아니고야 될법이나 한일입니까. 아내가 신명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모양이라며 기뻐합디다』

『원래가 실물(失物)이란것은 신이 내리고나서 두번째로 오는 영험이요, 도중에 잡기가 끼이거나 만신 스스로가 수행에 게을리하면 영험은 그치게마련이지』

정원태는 진작부터 안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황회가 말하였다.

『한데 그날밤 꿈에 나는 흰수염에 흰 도포를입은세 노인을 보았소. 나중에 아내가 삼신님이었다고 일러줍디다』

『삼신(三神)은 우리 조상 신령님들이시지. 환인 환웅 단군할아버님들이 그 이들이요』

『삼신께서는 제게 이릅디다. 뒤에 제석께서 이르실것이니 잘 모시라구 그랬지요. 아내가 이르기를 십이 제국(諸國)의 조상신들위에 삼십삼천의 주인되시는 이가 제석(帝釋)이라 하였더니, 지난번에 여환스님이 그분이 바로 도솔천의 미륵님이라고 하십디다. 여환스님과 은율만신은 제각기 미륵님을 뵈었다지요. 미륵님은 눈이 화등잔 같고 몸에는 금수복(金繡服)을 떨쳐입고 징을 치면서 북방에서 현신하여 용을 타고 남북을 오르내린다고 합디다』

『즉 북방은 물(水)이요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근본이고, 검은 색 현무(玄武)이니 천지의 조화를 이름이요, 물과 상극하나 지나치면 음을 내포한채로 북이 되는 남방은 청룡(青龍)이라 자비와 인(仁)을 이름이지요. 이는 개벽의 조짐을 스님께서 비유를 들어 풀이한 모양이요』

황회는 정원태의 말을 듣고는 이어서 답하였다.

『마흔 한 날만 채우고 내려온 것은 천불산에서 신서(神書)가 와서 스님께서 우리를 급히 불렀던 때문입니다』

『신서라니?』

『삭녕 장군사에 의탁한 전서방 아시지요?』

『탑고개 꽉둑각시패를 이끈 전성달이 말이요?』

『예, 그 사람이 시방 삭녕 미륵도의 상좌이오』

김시동이가 덧붙였다.

『성님 작은 조카되는 정명이가 안협상수리 살지요? 해서의 전갈은 그쪽을 통하여 전서방에게 닿도록 되어 있읍죠』

『음, 정명이가 제형 원명이와 함께 왔더라. 여환스님께서는 그것이 물론 큰 스님들께서 보낸 것인줄로 알고 깊이 공부를 하시고 이번 칠성암 큰재 때에는 신서를 나누어 주시고 함께 법문도 나누기로 하였소. 내가 대강 보았는데 언문과 친서가 섞여 있어서 뜻이 간추려지지 않아도 금당개세(今當改世) 미륵출래(彌勒出來)라는 구절이 있읍디다』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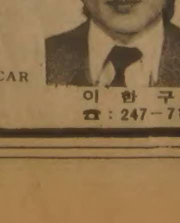
GOLDEN CHINA 新金國酒家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 B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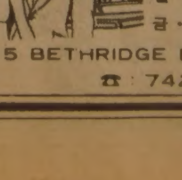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 (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또 성난 4월의 仁壽峰

등반大學生 7명 慘死

폭설·強風에 자일엉켜、11명 구조

4월 첫일요일인 3일하오 서울 道峰區 北漢山 仁壽峰(해발803m)을 등반했던 대학생 18명이 조난, 成均館大 南宮垠군(19·역사철학계열1년) 등 7명이 추위와 허기로 숨지고 11명은 구조됐다. 이날 조난당한 대학생들은 成均館大생 12명, 建國大생 3명, 仁荷大생 1명등(나머지는 光云공고생1명과 일반인 1명)이다. 이들은 이날상오까지 맑았던 날씨가 정오께부터 흐리기시작, 폭설이 쏟아지면서 초속15m의 강풍까지불자 하산을 서둘렀는데 일부는 자일이엉켜 암벽에 매달린채거나 대피했다가 강추위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하이포더미아(Hypothermia)현상으로 동사(凍死)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1년생으로 조난을 극복하는 경험이 부족한데다 날씨를 예측치못한채 충분한 장비와 비상식량등도없이 무대고 등반했다가 조난을당한 것인데 구조가늦어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이번 仁壽峰참사는 지난71년11월28일 梨花女大생 7명이 동사한이래 12년만에 빚어진 대형사고였다.

★관련기사 10·11면

사망자와 구조자명단은 다음과같다.

◇사망자(7명)

▲南宮垠(19·成大역사철학계열1년)▲金基澈(20·〃체육교육과3년)▲文貞植(19·〃전자공학과1년)▲崔成權(24·〃기계설비학과3년·복학예정)▲朴鍾珏(19·建大입학과2년)▲金仁杰(17·光云공고2년)▲朴德男(27·일반인·東大門區面牧6洞산1의6)

◇구조자(11명)

▲李珉雨(18·成大기계설비학과2년)▲高興烈(23·〃물리학과4년)▲嚴盛浩(22·〃화공과3년)▲金大鉉(21·〃철학과1년)▲朴幸弘(19·〃경영계열1년)▲金建鎬(19·〃조경학과1년)▲林秉植(19·〃기계학과1년)▲具乘徹(21·〃전자공학과3년)▲高爽東(19·建大토목공학과1년)▲金周鎰(29·建大산악회 OB회원·제일은행 道谷洞지점)▲朴敏鎬(19·仁荷大무기재료과1년)

◇放心이부른 慘變…탈진된채 구조되는 大學生

「따뜻한 4월달에 눈이 내리랴」고 방심한채 준비없이 仁壽峰에 올랐던 대학생 20명이 진눈깨비와 영하의 추위속에서 조난, 7명의 희생자를 냈다. 추위와 허기로 탈진된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하산하고 있는 조난 대학생。

◇南宮垠군

◇金基澈군

◇文貞植군

◇崔成權군

◇朴鍾珏군

◇金仁杰군

◇朴德男씨

임시국회 會期 20일로

3黨총무 합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는 4일하오 국회에서회담을갖고 오는 11일 소집되는 제1백16회 임시국회會期를 20일로 정하는한편 가을 정기국회에 앞서 5월하순께 제1백17회 임시국회를 또한 차례열기로 합의했다.

회담이 끝난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오는가을 IPU(국제議會연맹총회) 등국회운영의 제약성 때문에 임시국회를 앞당겨 5월말께부터 6월상반기까지 또한차례 열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林鍾基民韓黨총무는 국내油價조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經科·商工연석회의 소집과 4월임시국회에서 常委활동기간을 늘릴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黨총무들이 합의한 4월임시국회의 운영日程은 본회의 11일, 常委 7일, 공휴일 2일로 정했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일=국회 正副의장선거·개회식 ▲12일=국무위원출석요구및 國政보고청취 ▲13일=常任위원장선거▲14일=각交涉團體대표연설▲15~22일=본회의 國政에관한 질문▲22~29일=상임위▲30일=본회의 안건처리

구독신청 배달사고

◇全대통령이 全經聯새회장단을 접견하고있다。

"部品수출 주력해야"

全대통령、全經聯회장단 환담

全斗煥대통령은 4일낮 청와대에서 전국經濟人연합회의 鄭周永회장、金容完 명예회장등 신임회장단 19명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大企業에대한 중소기업의 納品을 둘러싸고 不正사례가 있다고 지적、기업내부의 不正소지를 없애는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앞으로 完製品의 對선진국수출장벽이 더욱 굳어질것으로 보이기때문에 部品의 質을높여 부품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大企業은 중소기업에대한 꾸준한 기술지도와 경영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해주어야한다』고말했다.

趙治勳棋聖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4일상오 청와대에서 趙治勳棋聖을 접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바둑타이틀을 모두 석권한 趙棋聖은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저력을 세계만방에 인식시키는데 큰역할을했으며、국민적 단결과 사기를 앙양시키는데도 큰기여를 했다』고말했다.

比 과기처장관도

全斗煥대통령은 4일하오 청와대에서 필리핀의 에밀·퀸토·하비에르 국가과학기술처장관을 접견、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모범豫備軍들도

全斗煥대통령은 4일하오 청와대에서 安福五씨(48·昌原大宇중공업대대장) 등 모범예비군 35명을접견하고 다과를 함께들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우리 예비군의 수준이면 北韓공산집단의 어떠한 후방침투도 격멸할수 있는만큼 투철한 사명감을갖고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어 주기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北韓공산집단의 공중침투와 야간침투에 대비한 戰術戰技를 철저히 익혀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답부했다.

社告

내일 보리·코너즈 招請테니스

하오 7시30분 蠶室체육관서

4시開場、男代表 오픈게임도

세계 프로 테니스의 진수를 선보일 83보리-코너즈 초청 頂上 테니스대결이 드디어 내일(6일)하오7시반 잠실 체육관 특설코트에서 열립니다. 메인·게임에 앞서 6일하오5시부터 한국 남자 대표선수들간의 복식오픈 게임이 펼쳐지며, 하오 7시에 보리-코너즈 대전 입장식을 거행합니다. 데이비스컵 동부지역 준결승전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복식경기는 金春浩(23·현대중공업) 李宇龍(22·현대중공업)組와 全昌大(23·대우중공업) 宋東郁(21·울산공대)組로짜여졌읍니다. 보리와 코너즈는 5일하오내한하며, 경기당일 혼잡을 피하기위해 하오 4시부터 開場합니다. 테니스 팬들의 질서정연한 觀戰을 부탁드립니다.

협찬 코오롱스포츠 Slazenger

한국일보社

金鍾泌 前총리 15일 訪美

콜럼비아大 초청

金鍾泌前共和黨총재는 美콜럼비아대학의 초청으로 약 2개월간 미국을 방문하기위해 오는15일하오 出國할예정이다.

金씨의 訪美에는 韓丙起前캐나다대사、金龍年前의원、羅必烈前美플로리다大교수가同行한다.

拷問 금지법 마련

民韓、임시國會전에

民韓黨은 4일 상오 韓一合纖이사 金根祖씨에대한 폭행致死사건과 관련、고문방지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원내총무단과 고문방지법(假稱) 5人小委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전에 고문금지를위한 특별立法案을 마련하거나 현행 특정범죄등에관한 加重처벌법의개정안을 작성、검찰·경찰등 수사요원이 국민을 致死행위했을경우 法定최고형인 死刑까지 구형토록하는 법률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民韓、곧 議員총회

民韓黨은 제1백16회 임시국회 全般에관한 대책을논의키위해 금주중 院內對策委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소집할 방침이다.

林鍾基民韓黨총무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의원총회는 총재와 상의、7·8·9일중열게될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원내대책위를 열것』이라고 말했다。

캄難民 3백명 사망

베트남-泰軍 계속 접전

【방콕=外電】 타이군과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의 反政府게릴라들에 대한 군사적 공세강화로 벌어진 국경충돌을 4일째인 3일 포격전을 갖는등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날의 포격전에 앞서 베트남군은 지난2일 베트남군대가 타이국경안으로 2km까지 침투, 타이군과 치열한 白兵戰까지 전개, 타이군은 5명이 전사하고 적어도 10명이 부상하는등의 인명피해를 냈다.

타이군의 아르티트·캄랑·에크 육군사령관은 방콕東쪽 2백80km의 산간촌락 프놈·프라주변지역에서 양국군대가 이틀간의 치열한 접전끝에 베트남군대가 캄보디아국경안으로 퇴각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치열한 전투가 이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베트남군은 방콕東北2백km에 위치한 한 反政게릴라진지에대해 또다시 포격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번 전투에서 민간인의 사망자수만도 3백명이상이 났을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타이의 시드히·사베트실라 외상은 지난2일 베트남군대가 타이·캄보디아국경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더이상 강화할경우 타이는 이에 대한하는 강경한 외교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社会漫評

植木은 1日… 無管理 364日…

地平線

7세기 중엽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의 4면불이 며칠전 확인되어 일반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예산군 봉산면 속칭 불당곡에 묻혀있었다는 이 4면불은 높이가 3m에 폭이 1.2m되는 큰화강석 자연암석에 조각된것으로 박물관당국자들의 견해로는 국보적인 가치를 지닌 우수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자연석의 4면에다 불교의 예배대상인 여래의 입상과 좌상을 양각한 백제불이 발견된것은 처음있는일이다. 이미 신라때것으로는 경주 남산의 신인사 4면불을비롯하여 네곳에서 그유례가 발견된바 있으므로 앞으로 3국시대 불교와 불상조성양식이 서로 어떤경로로 전파되고 또 상관을 지녔던 것인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문헌이 아주 귀하고 이에 못지 않게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유물이 드문상태에서 뒤늦게 나마 새로운 학술적인 귀중자료를 얻게 된것은 백제사와 백제 고고미술사의 공백을 메우고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듯 하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불교신앙상을 밝히는데도 크게 보탬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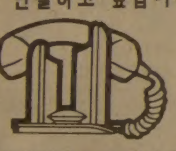
▼다만 이처럼 큰 조형물이 비록 사람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외진 곳에 묻혀 있었다 해도 이제껏 발견이 늦어진 것은 문화재에 대한 현재의 사회적 노력이 부실한 탓이 아닌가 하는 의념을 불러 일으키게한다. 좀더 학술적이고 조직적인 지표조사가 있었던들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것이다.

▼그에 반해 이렇다할 전문적인 지견이나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할수 없는 현지 주민이 그 조형물을 범연한 것으로 넘기지않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역사적인 중요문화재가 빛을보게했던 행위는 마땅히 포상받음만 하고 널리 일반에게도 알려져야할 본보기로 생각된다.

▼더말할나위 없이 나라의 문화재는 발견도 중요하지 만는 그 지니바 뜻을 밝히고 학문적 의의를 부여하는 후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다시금 종합적인 지표조사의 시행과 학계의 기초적 작업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토

시청으로 연결하고 싶습니까?



83년3월20일부터 시청의 전화국번호가 367로부터 947로 바뀝니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1983 PAN AMERICAN OPEN TAEKWON-DO CHAMPIONSHIP

TIME: APRIL 16, 1983
ELIMINATION 12 P.M.
FINAL 7 P.M.

PLACE: ETOBICOKE OLYMPIUM
590 RATHBURN RD.
ETOBICOKE, ONTARIO

TICKETS:
ADULTS $5.00
CHILDREN (UNDER 12) $3.00

FOR MORE INFORMATION
(416) 247-7577

RIM'S TAEKWON-DO SCHOOL
(INSTRUCTOR: RIM SONG HACK)
1963 WESTON RD. WESTON, ONT. CANADA M9N 1W8

反核시위 유럽全域 확대

——復活節맞아…美基地부근서 聖베드로 廣場까지

3일째 20만參加

【런던外=聯】연3일째 계속되고 있는 반핵시위물결이 부활절인3일 유럽전역에 걸쳐 모두 약20만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7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로마에서는 약1만명의 이탈리아인들이 폭우속에서 핵무기경쟁에 항의하여 성베드로광장으로 행진했으며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패스레인핵잠수함기지부근에서 1천여명이 꽃으로 장식한 관을 앞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네델란드에서는 2천5백여명이 횃불을 들고 우텐코 농축우라늄공장으로 행진했다고 현지경찰은 전했다.

부활절을 기해 西獨전역에서 약50만명이 시위에 나설것이라고 예상했던 西獨의 반핵단체들은 부활절인 이날 18만명이 미국제 순항미사일과 퍼싱Ⅱ미사일의 유럽배치에 항의,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西베를린의 한 美軍레이다기지에서는 1백20명의 군중들이 2백50여명의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끝에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소동을 벌였다.

◇전쟁냄새나는 세상에 降福을…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이 부활절미사를 위해 로마의 聖베드로광장에 운집한 순례자및 가톨릭 신도들에게 손을들어 축복하고있다. 【바티칸 시티 3日AP電送=聯合】

敎皇 復活節메시지 "전세계 核공포에 떨고있다"

【바티칸시티外=聯】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3일 聖베드로성당에서 부활절특별미사를 집전하고 고통으로신음하고있는 인류는 예수의고행과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노력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청중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나쁜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베드로광장에 운집한 20여만명의 가톨릭신도들에게 부활절메시지를 통해 그같이 촉구했다.

교황은 또 소세계가 核무기로 전멸될수있는 위협아래 항상 놓여있다면서『우리의 생존기간중에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보다 강하게 느낄수록 우리자신은 더욱 충실히 主의 권능에 의탁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赤道부근도 發生가능 美전역 확산 後天性면역缺乏症

【워싱턴=聯】현재 미국 전역에 전염병처럼 확산되고있는後天性면역결핍증(AIDS)이 아프리카의 赤道부근 지역에서도 발생한지 모른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2일 최신의학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포스트紙는 후천성면역 결핍증을 옮기는것으로 보이는 균이 赤道부근 아프리카일대의 풍토적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예상만큼 새로운것이 아닐 가능성을 프랑스의 한 의료연구진이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프랑스 보건성의 후원을 받은 이들 14명의 연구진이 영국의 의학전문잡지 란시트 최신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후천성면역결핍증세 환자29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10명이 발병이전 5년간 아프리카를 여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中國화단의 巨匠 張大千화백 別世

【臺北=聯】전통적인 중국 산수화와 연꽃그림을 주로그려온 동양화의 거장·張大千화백(사진)이 2일 심장병으로 臺北에서 사망했다. 향년84세.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공부해온 張화백은 25세의젊은 나이로 중국화단에 명성을날렸으며 지난49년 中共정권수립이후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미국을 전전한후 臺灣에서 살아왔다.

◇張大千화백

中·蘇 곧國境무역

20년만에…관계改善의 신호인듯

【北京外=聯】中共과 소련은 약20년만에 처음으로 곧 국경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中共의 반관영통신인中國신문사가 2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소련의 극동무역 담당회사의간부가 이끄는 소련대표단이 소련과 접경하고 있는 黑龍江省의 省都 하얼빈에 도착했다고 전하고 양국국경무역은 물물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내용은 밝히지않았다.

이통신은 또양국은 이미 지난해10월 소련에서열린 회담때 국경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련소식통들은 中蘇국경무역은 금년에 1백70%가 증가한 약8억달러에 달할것으로보이는 양국간 전체무역량중 일부를 차지할것이라고말했는데 국경무역재개협정은 양국관계개선의 또하나의 신호인것으로 풀이된다.

77그룹 頂上회의 오늘부터 5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外=聯】지난주부터 현세계경제위기를 논의해온 한국을 비롯한 「77그룹」1백6개국 대표들은 5~9일까지 공식정상회의를 열고 공업국들중심의 부당한 현경제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 제3세계대표들은 지난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정상회의에 상정할 의제를 마련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예비회의에서는 주로 원자재와 재정문제가 집중논의됐다고 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하는 원자재의 국제가격하락과 공업국들의 수입규제가 주요관심사였다고 덧붙였다.

"日本에 核 전혀 없다" 나까소네、그로미코發言에 반박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수상은 4일 參議院에서 소련의 그로미코외상이 오끼나와에 거대한 核기지가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정치적으로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것이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나까소네수상은『일본에는 非核3원칙에 따라 핵무기는 전혀없으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함이없이 핵무기 가없는 일본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짙다』고 말했다.

아베(安倍)外相도 이날 참의원에서 그로미코 외상이 오끼나와에 거대한 핵기지가 있다고 발언한것은 사실무근이며 소련이 극동지역에서 軍備를 증강하기위한 구실에 불과한것이라고 분석했다.

美、宇宙왕복선 챌린저號 오늘새벽 發射

【케이프·카내버랄(美플로리다州)UPI=聯】有人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 이어 미국의 2번째 有人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4일오후 1시30분(한국시간 5일새벽3시30분) 처녀비행에 나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3일 美항공우주국(NASA)관계자들이 말했다.

나사의 해리·화이트대변인은 6월초와 8월초 두차례 더 비행할 챌린저號는 콜럼비아號보다 중량은 가벼우나 더욱 강력한 힘을 가져 화물적재능력이 콜럼비아號보다 거의2배가될 화물23톤을궤도에 올려놓을수있다고말했다.

鄧小平과 30분會談 무바라크 埃대통령

【北京外AP=聯】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3일 인민대회당에서 중공최고의實權者鄧小平과약30분간會談했다.

이자리에서 鄧은이집트국가원수로서는 처음 중공을방문한 무바라크를 환영하면서 이집트는 아프리카대륙의 아랍국가로서는 처음으로 1950년 중공을 승인한 국가라고 찬양했다.

레바논 基督·回敎민병대 또충돌 2개월의 休戰끝에… 3명 死傷

【베이루트UPI=聯】레바논기독교 민병대와 드루즈파 회교민병대는 약2개월전 협상을 통해 합의본 휴전을 깨고 3·4일 연이틀간 충돌, 기독교민병대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3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한 레바논 치안관계 소식통이 전했다.

吳振宇 副主席될듯 사망한 康良煜후임

【東京=聯】北傀의 인민무력상 吳振宇가 5일 平壤에서 열리는 北傀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1월 사망으로 공석이돼있는 부주석 康良煜의 자리에 승진될지도 모른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4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人事異動

住宅銀行 ▲기획부장 金在基 ▲인사〃 尹容錫 ▲서무〃 朴台燮 ▲심사〃 權純益 ▲여신관리〃 崔善用 ▲영업2〃 洪在九 ▲종로지점장 金在宇 ▲무교동〃 李秋賢 ▲성동〃 鄭三澤 ▲계〃 鄭鎭城 ▲소공동〃 全日永 ▲청량리〃 林世煥 ▲중화동〃 元德常 ▲불광동〃 崔會永 ▲역촌동〃 金成根 ▲염창동〃 金炳鎬 ▲대치동〃 金永用 ▲암사동〃 李明杓 ▲개봉동〃 金洙萬 ▲인사부속연수원장 金龍湖 ▲중부지점장 林梓玉 ▲남가좌동〃 朴哲遠 ▲강서〃 李寬鏞 ▲수원〃 權寧培 ▲청주〃 金禎煥 ▲성수동〃 李鍾煥 ▲자양동지점 구의동〃 李宗宇 ▲금융소 康善元 ▲미아동〃 吳泳宇 ▲장위동〃 韓應洙 ▲역촌동지점 서부간이예금취급소장 李具 ▲天書창동지점방화동〃 丁炳駿 ▲勳李흑석동지점장 ▲사당동〃 申京雨 ▲사당동지점 과천간이예금취급소장 趙佳元 ▲논현동지점장 朴龍民 ▲방배동〃 金櫖年 ▲거여동〃 趙錫海 ▲압구정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韓瑛錫 ▲청담동〃 朴龍鎬 ▲학동지점 始龍 ▲논현동지점〃 康 ▲신사동〃 이예금취급소 陳弘 ▲산동〃 旭 ▲개금간 李煥연 ▲부천〃 朴正秉 ▲부평〃 李東聖 ▲부산〃 崔圭成 ▲이리〃 朴義 ▲군산〃 宋世根 ▲광주〃 李輔玉 ▲여수〃 張錫元 ▲광주〃 方大英 ▲동대구〃 李起 ▲순천〃 李炳翰 ▲안동〃 李炳翰 ▲창원〃 李褒 ▲진해〃 李奎炯

서울信託銀行 ▲業部長 金大源 ▲中小企業部長 ... ▲東大門支店長 ... ▲孔德洞〃 (2日字) (4日字)

本社來訪

▲金相福씨(每日經濟新聞編輯局長) ▲黃利淵씨(援護處代辯人) 신임人事次

◇거대한 우주海蔘? 美우주왕복선 챌린저號 발사전 케이프우주센터 상공의 기상을 점검하기위해 띄워지고있는 기상 관측기구의모습 【케이프카내버랄3일日電送=聯合】

"日 여성은 性생활에 매우 소극적"

★共同通信 일본인 性생활 실태조사

교오도통신이 10명의 대학교수와 5명의여성 자문단에 위촉, 지난 81년부터 1천1백쌍의 관공서와 기업경영층 부부들및 5천8백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아본 일본인의 性생활실태가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응답자 부부중 40%는 피임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임법을 사용한사람들중 75%가 콘돔을, 25%가 월경주기법을, 15%가 성교중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평균연령이 40대인 응답자들의 성행위 횟수는 평균 주1·2회. 소요시간은 20분에 불과해 서구인들의 성생활에 비해 훨씬 저조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서구인들과 특히 다른점은 일본여성들이 성생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점. 여성응답자중 60%는 항상 남편의 주도권에 따라 성행위에 응한편이며 36%는 거의 언제나 그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대답했으며 남편과 같은 비율로 혹은 더 자주 성생활을 주도한다고 대답한사람은 4%에 불과했다.【朝】

寶石알기를 돌같이

★中共광부 보물 마구버려

중공은 광부들이 보석의가치를 미처 알지못해 수억달러상당의 비취등 보석을 내버렸다고 중공의 한관리가 2일 탄식.

중공의 冶金·業部에 근무하는 린·광킹은 人民日報에 기고한 글에서 다른광물을채굴하고있던 광산에서 보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같은문제가생겼다고 밝히고 광부들이 수년간 보석을 값싼광물로취급해서 버렸는데『버린 광물을 모두 모으면 5백만달러 이상이 될것이며 만약세공을 했더라면 그 금액은 엄청날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린씨는 중공이 세계70여개국가에 보석을팔아 외화수입을 올리면서도 보석채광에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일칭.【AP】

社說

戰爭정책의 冷酷性

—公開된 美국무성文書와 우리

「6·25」는 우리가 겪어야했던 가장혹독하고, 가장 규모가 큰 역사적 체험이었다. 金日成의 끔찍스런 불장난이 저지른 파괴와 유혈의 폭풍은 이 민족의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한만큼 이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었다.

무엇보다도「6·25」는 우리가 미처익숙지못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선을 뵌 중요한 무대요, 기회였다. 지난2일 공개된 미국무성의 기밀문서는 그런 뜻에서 30년전 우리가 차지했던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위치를 새삼 클로스업시켜주는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주고있다.

「1951년도 미ㅣ대외관계、제7권 한국및 중공」이라는 이문서에는 지금까지 대충 알려졌던 사실이 많지만,그렇지 않은 대목들도 있다。예를 들어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개입하면서 미국에서는 한반도포기 가능성이 심각하게 논의됐고, 제주도나 하와이에「한국 망명정부」를 두는 문제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1백만명의 철수계획과 함께 남해안일대에서의 게릴라전도 검토됐다 한다。

우리가 유엔군과함께 피를 흘리고 있을때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이러한 정책 논쟁은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분석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몇가지 기본적인 교훈을 손쉽게 지적할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중공 또는 아마도 소련으로부터의 압도적군사력개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포기를 끝까지 반대한것은 국무성이었다는 사실이다。적어도 한반도가 갖는 의미는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것임을 보여준 사실이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입장에서볼때 한반도는 대량보복의 시대요, 핵공포의 균형시대에서 전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상징하는 정치적내지 전략적의미를 갖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거꾸로 국방선이 휴전선을 元山선으로 올려 잡자고 주장한데 대해 38선에 준하는 현재의 선으로 낙착된것도 이러한 세계전략의 원칙이 관철된 때문이었다。마찬가지로 전쟁확대로를 무릅쓰고 중공의 인해전술에「제한전쟁」의 한계를 지킨것도 미국이 한반도에서「현상유지(스테이터스·쿠오)」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 워싱턴의 막후에서 갖가지 가능한「정책代案」들이 논의됐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않을수 없다。우리의 입장에서「포기」를 주장하는 제안이 보다 충격적인 인상을 주게마련이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그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결론도 있었던것이다。

중요한것은 이렇게 다양한 정책代案들이 나왔다는 사실 이다。결국 초강대국의 입장에서 미국은「포기」도,「확전」도 아닌 스테이터스·쿠오로 낙착지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이 검토됐다는 사실은 냉혹한 국제정치무대에서 살아가야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공산측과 맞서있는 우리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6·25이후 李承晩대통령(당시)의 강력한 요구로 맺어진 한·미방위조약이 규정한 것이다。그것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것이 1개사단규모의 주한미군이다。6·25전과 그이후의 한·미동맹관계는 그만큼 달라졌다고 단정할수 있다。

그러나 동맹관계의 근본적인열쇠는 두나라 국민사이에 문화적 동질의식이 얼마만큼 뿌리깊게자라느냐에 달려있다。30년전 워싱턴 막후에서 벌어졌던 논쟁의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교훈은 조약문서이상의 근본적인 바탕형성과 우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自然 그天惠와 恐怖

—遭難참사·植木日에 느껴지는것

산은 자연의 처음이자 또한 끝이라고도 한다。「산의 天恵」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저절로 산과 나무와 祖上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오늘은 식목일, 청명이며, 잇달아 내일은 한식이다。

이 생기 넘치는 節氣를 앞두고 지난 일요일(3일)은 날씨가 몹시 음산했다。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친 짓궂은 자연은「휴일의 산」에서 끔찍한 조난의 悲報를 알려왔다。「仁壽峰」에서 대학생 7명이 숨지고 11명이 구조됐다는 것이다。

대한생등반대의 조난비극은 우리에게 거듭「자연의 공포와 畏敬」이라는 무서운 교훈을 일깨우게한다。산은 인간의 無謀한 도전이나 만용、안이한 착오를 한치도 용납않는다。그를 사랑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은 넓게 包容하나、그렇지 않을땐 오히려 놀라운 危害를 자초케할 뿐이다。

삶의 안식과 登頂의 환희는 苦行으로부터 출발한다。고난의 山行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따른다。에베레스트登頂까지 성공한 우리 알피니스트의 고난과 희생은 국내외 名山 곳곳에 뼈아프게 깔려있다。해마다 크고 작은 조난의 그림자가 새겨져왔다。仁壽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仁壽峰참변은 따지고보면 전문성이 절대적인 로크 클라이밍의 등반기술 미숙에 있었다고 하겠다。게다가 山頂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기상급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산은 살아있는 자연이다。急變하는 환경대비책을 꼭 갖춰야 했었다。

등반기술과 장비를 제대로갖췄고 좀더 침착했다면 젊은이들의 희생은 훨씬 덜어졌을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다。아울러 구조대책에 허술한 구멍이 없었나 하는 후회가 따라 붙는다。조난의구조는 긴급성이 절실하다。사고가 나고도 10여시간을 지체했다는것은 구조대책에 신속성을 잃었다는 反證같다。

「신속」을 전담할 연락망이 우선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특히 등산객이 붐비는 휴일엔 사고에 대비한 통신수단이 연결됐어야 옳다。구조의 지연은 조직력의부족도 밝히고 싶다。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안되게 豫防의 萬全을 당부해둔다。

자연은 이렇게 두렵지만、한편 가꿔갈수록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온다。山에 대한 畏敬心이 이어지기를 바란다。자연보호로「人工의 苦」에 자연은 고스란히「恩」로 대응한다。무수한 山禍를 입은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造林綠化·治山治水로 푸른 강산을 일궈왔다。그동안 1백억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다。

자연보호운동의 결실도 차츰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이젠 단순한 綠化에서 育林 차원으로, 더 앞질러 나무의 경제성마저 찾을 하게되었다。造林의 資源性에 관심을 쏟을 단계에 온것이다。

오늘 식목일을 맞아 전국엔 또 많은 나무가 심어질것이다。植木은 우리생존의 터전을 넓혀가는 작업임을 잊지말아야하겠다。심는것도 중요하나 가꾸는일이 더 어렵다。나무만이 아니라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위험이나 무리한「개발」도 삼가는게 옳겠다。자연보호의 큰 줄기는 역시 자연을 자연대로 키워가는것밖엔 달리 길이 없다。

산은 한국인의 고향이다。祖上이 묻혔고 지금 우리가 살고있고 또 후손에게 남겨줄 귀중한 자산이다。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삶의 이상적인 기조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張吉山 <170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68)

『우선 포교가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오。대덕 말씀대로 석가의 세대가 진하여 미륵존불께서 마땅히 세상을 주장하게 된다면、그를 믿는 이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야 하고 백성들가운데 드넓은 개심이 일어나 개세할 바람이 생기게 되겠지요。심지어는 양반들 까지도 미륵이 세상을 이미 바꾸었음을 알게되면 그들도 스스로 마음을 돌릴것 입니다』

『앞뒤가 바뀐 얘기유』

김시동이 퉁명스럽게 황회의 말을 잘랐다。

『이것 큰일이로군。전에는 성님이나 스님께서 그 들을 함께 해나가자더니 어느 겨를에 선후를 두어 개세할 의논은 뒷발로 차던지구 말았네요。오진암 법회때 결정된 안과도 달라졌수』

『달라진게 아니라니까。그러나 지금은 우선 교세를 확장해야만할게야。검계의 계원들을 상좌로 삼아도 좋겠지』

정원태가 김시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으나 황회의 말을 막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황거사의 말은 내가 듣기로도 이전에 솔부리서 모였던 계획 때에 꺼냈던 안과 달라진 바가 없어요。여환 스님의 말씀대로 검계는 식구들을 모으며 기다리고 미륵 향도들은 교세를 확충하면서 검계의 씨앗을 두껍게 싼다는 얘기였지。내가 보기에는 김서방이나 황거사가 모두 같은 뜻임에도 자기의 일에 대하여 자만심이 생겨난 탓인가 하오。떡을 하려면 떡메로 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을 붓는 사람도 소용이 되는 법이지요。그런 말싸움은 그만들하고 어디 황거사 산에 올랐던 얘기나 들읍시다』

『내가 본시 진관사에서 부터 드난살이로 타관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정대덕을 노적사에서 만난뒤로 미륵존불을 알게 되었소。그러니 나와 소시적부터 형제나 다름 없는 시동이나 달이가 ... 삼각산 북편의 멀리 도봉이 내다보이는 암굴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목욕재계하고 분향하며 기도를 하였소。내가 처음에 영험에 접한 것은 기도처에서 밥을 하여 위에 얹고나서 설봉(失物)을 겪은 것이올시다。아내와 나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해가 오른 참에 비로소 중화 겸하여 밥을 지어 천신 드린 뒤에 먹고는、또한 저녁에 남은 것을 죽 끓여 먹고서 잠들 때까지 기도를 하였지요』

『맞았소。내 별호가 원래 있소?』

몽롱이 들고 화적당이되었지。그러나 살지니나 나무 어른이 많이 되었수。흐르는 물처럼 인간사가 바뀌는데 성님이라 구 거사님 안되란 법이 사람 거사패 동무들이 불러주어 대덕이지、우리 마누라도 보살이고。허나 이제 모두 미륵님 앞에 다같은 용화향도이니 너무 추저하지 마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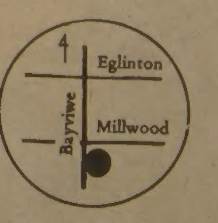
정원태도 그렇게 말하자 황회는 우선 술 한잔을 죽 들이키고는 말을 이었다。

『아내와 내가 원래는 삼각산에 오롯제 백일기도를 작심하고 갔지요。그러다가 마흔 한 날을 채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救助 제로」… 17시간 늑장

기상突變무시 登攀강행

뒤늦은 下山… 자일얼어붙어 東手無策

【조난】 成大산악부원15명은 1학년 신입생의 훈련등반을 위해 전날 인수산장에 도착, 야영한뒤 3일 상오7시30분부터 3개조로 나뉘어 등반을 시작했다.

이들이 2백m앞코스의 중간지점인 1백여m를 등반했을 무렵인 낮12시께부터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왔는데도 계속 등반했다.

吳군에의하면 기존 A코스팀은 정상아래 30m지점에이르렀을때 시계가 5m이내로 앞이안보이고 자일이 엉키는가하면 암벽에 눈이쌓이고바람이 심하게불어 하산하기시작했다.

악전고투끝에 1백20여m지점인 속칭 오아시스(솔밭)까지왔을때는 5시간이지난 하오10시께였고 崔군과 文군은 이미 의식불명인 상태였다.

또 기존 B코스팀과 우정 B코스팀도 정상 40m아래지점에서 합류, 하오4시께 정상에 오른뒤 하오5시께부터 후면 하강코스로 하산을시작했는데 자일이 얼어붙어 제대로 회수가 안되는데다 체온이 급강하, 40m를 남겨놓은 하오10시께 하산을 포기했다. 그래도 대장 李군등2명은 안간힘을다해 하산했고 나머지7명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4명의 희생자를냈다.

建大산악반(회장 李大輝·22·독문과3) 11명도 2일하오 白雲산장옆에서 야영한뒤 3일 상오7시부터 여학생1명만남겨놓고 등반을 시작했다.

建國大팀은 부근에서 야영을 했던 仁荷大생 13명과 함께 혼성팀을 조직한뒤 한조에 4~5명씩으로 우정A·B코스·인수B코스·쉬나드B코스등 4개코스로 나눠등반에 나섰다.

낮12시30분께부터 눈발이 본격적으로 날리자 우정A코스를 오르던 조는 철수를했지만 다른 3개조는 계속 등반을했다.

建大·仁荷大 혼성팀은 대부분 쉬나드B코스를타고 하산도중 조난당하거나 우정B코스로 내려오다 자일에 몸이 묶인채 조난당했다.

【신고·구조】 이날 조난사실은 仁壽산장관리인인 李卿九씨(42)가 얼어붙은 암벽에서 구조를 외치는조난자들의 소리를 듣고 신고함으로써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하오10시께 경찰관등 7명을현장에 보내구조에나섰다.

이에앞서 당시 白雲산장에 머물던 에델바이스 산악회원 2명, 成大OB팀 仁荷大OB팀이 자체구조를 시도했으나 악천후와 장비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하오11시50분께야 산악인8명과 金慶培대한산악연맹구조대장등이 도착,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경찰과 산악인등 1백80여명으로 구성된 구조반은 4일 상오1시15분께 조난자16명을 확인한뒤 상오2시 후면하강코스의 조난지점에 도착, 의식을 잃어가던 成大嚴盛浩군등 5명을 구조했는데 金基徹군은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숨져있었고 南宮堈군도 자일에매달려 숨져있었다.

한편 기존A코스의 조난자들은 상오5시께도착한 구조대에의해 구조됐는데 吳군등 생존자들은 구조된후에야 의식이 회복됐다.

구조에 참가한 仁荷大산업공학과4년 吳賢昌군(23)에 의하면 조난지점에 도착해보니 생존한 吳군등도 서로부둥켜안은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 노래를시키는한편 다른 구조대원을 시켜 등에 업어 하산시켰다.

吳군등 구조대는 이어 60여m를 전진, 이날 상오6시30분부터 쉬나드B코스의 조난자들을 동굴에서 발견, 朴민호군, 金周鎰군, 高奭구등 생존자3명을 구조했는데 이때 朴鍾珏군은 이미 숨져있었다.

오아시스(솔밭) 지점으로 내려온 吳군등 구조대는 마지막으로 기존A코스를 전진 20여m와 40여m위에서 각각 숨진 朴德男군과 金仁杰군등 2명을 찾아내 상오10시40분께 하산시켰다.

【대학교】 4명의 희생자를낸 成大는 이날 상오10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申延澈학생처장)를 구성하고 장례절차등은 가족과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成大산악부(부장 李信馥교수)는 체육부산하운동부로지난59년창립돼 62년 대만玉山, 77년11월 일본 북알프스, 81년10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을 등정했다. 이날 산악부원들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28, 29일에이어 2번째등정을 했다가 변을당했다. 현재 회원은 25명.

建大산악반은 19년전에 조직됐다. 현재 재학생회원은 31명(여학생 5명포함)으로 주말마다 서울근교의산을 등반해왔다.

이날 仁壽峰등반은 1·2학년이 주축이되었는데 이들은 신학기들어 道峰山 仙人峰과 仁壽峰등을 3차례 오르고 4번째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했다.

◇千辛萬苦끝에 救助는 됐지만… 암벽사이에서 「추위」와 「허기」를 이겨내며 밤새도록 구조를 기다렸던 金仁杰군(17)이 빈사상태에서 구조돼 하산하고 있다。 金군은하산 즉시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警察 장비·經驗없어 손못써

自願 산악인에만 의존…申告체계도 미흡

仁壽峰참사

묵하면 조난사고가 발생하는데 구조체계는 제로다. 구조경찰요원도 없고 상주전문산악인도 없다. 조명탄, 헬기등 현대장비도 갖추어놓고있지 못하다. 그래서 8백만이상이 사는 수도서울근교에자리잡은 암벽등반의 최적지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71년에 대형참사가 일어났을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조활동이 신속했더라면 아까운 젊은 생명이 덧없이 얼어가는것은 훨씬 줄일 수도 있었다.

「등반부진」「山行의 무질서」만 탓할게아니라 완벽한 구조체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산악인들은 입을모아강조했다.

첫조난사고가 일어난 것은 3일 상오10시30분이었고 이어 하오2시30분까지 仁壽峰의 에러코스에서 잇달아 사고가 일어났으나 전문산악인들에게 알려진것은 9시간40분이지난 하오6시10분이었다. 그나마 이들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것은 다시 신고시간부터 5시간40분이 지난 밤11시50분.

암벽에갇힌 조난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조난자가 구조되기 시작한 것은 조난시간부터 무려17시간이지난 4일 새벽3시20분께 부터였다.

조난지점 코앞에 白雲·仁壽산장등 인가가있고 바로 산아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인력(경찰)이 있음에도 즉각 대처해야할 구조는 이렇게 늑장으로 일관됐던것.

仁壽峰은 주말마다 2백~3백명의 등반객들로 붐볐는데 이날은 3백여명이 몰려들어 차례를 다투었고 상오10시 조금지나서부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도 밑에서는 계속 등반자들이 암벽을 타고오르고 있었다.

확성기 경고가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하산은 그만큼 빨랐을것이다.

산악전문가들은 외국의경우 조난사고다발지역에는 평소 안내자가상주, 기상이 나쁘거나 사람들이 몰릴때 등반을 금지하고 질서를지키게해 조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있다고지적, 仁壽峰같은 난코스에는 「통제기구」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같은北漢山에있는 善仁峰은 더욱험한 암벽등반코스인데도 등반자들이 비교적 덜 몰려들어 조난사고가 잘 일어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인이나 경찰의 구조방법이 얼마나 미숙한가는 신고체제와 구조장비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곳은 仁壽峰 바로앞에있는 仁壽산장의 행정전화. 이전화는 산아래에있는 북부경찰서 신우이파출소와 연결이 돼있다. 仁壽峰정상에서는 걸어서 40분거리에 있는데 산장주인李卿九씨로부터 최초의 조난신고를받은 경찰은 아무런 장비도없이 경찰관5명, 방범대원2명등 7명이 밤10시께 출동했으며, 2차로 밤11시20분께 북부경찰서 5분대기조50여명이 출동했으나 암벽등반의 경험은 커녕 등산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이갖춘 장비는 너무나 미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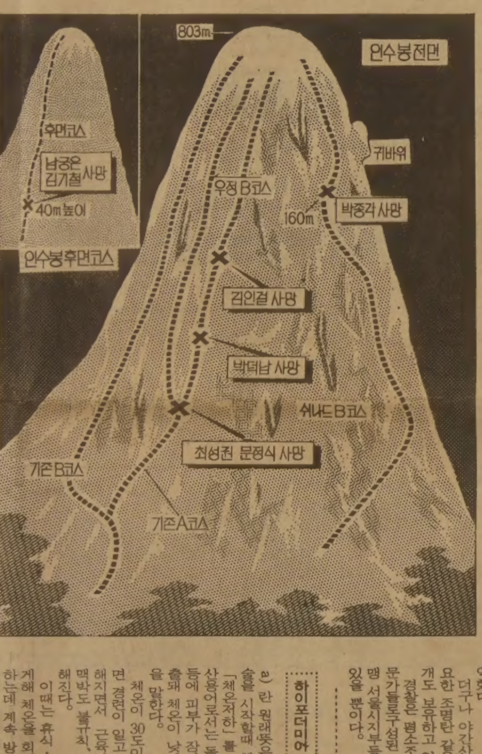
더구나 야간산악구조에 필요한 조명탄 같은 장비는 한개도 보유하고 있지않았다.

경찰은 평소조난구조는 전문가들로구성된 대한산악연맹 서울시지부등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전문가로구성된 구조대원들은 일정한 사무실이있거나 비상대기상태에 있는것이 아니고 연락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장비를갖춰 사고지점으로 모이게돼있고 무보수여서 기동력이 떨어지는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생활수준향상으로인한 레저붐으로 등산이나 등반자가 부쩍늘고 있다고지적, 또다시 대형의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인 구조를위해 외국처럼 장비와 전문기술을갖춘 국가적기능으로서의 산악구조대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朴珍列 기자】



"山을 좋아하더니 끝내…"

【가족주변】 사망자 5구의 시체가 안치된 서울 城北區 吉音洞 한미병원 영안실에는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50여명의 사망자 가족·친지·동료학생들의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建大생중 사망한 朴鍾珏군은 3대독자. 이날늦게 강원原城郡地正面住谷1里599에서 서울로 올라온 아버지 박치일씨(50·농업)는 아들의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하다 실신했다.

또 숨진 文貞植군의 아버지 文준섭씨(60·교원·서울鍾路區內需洞108의714)는 아들이지난 토요일 『건강을위해서 선배들과 함께 산에간다』고 나간뒤 이같은비보를듣게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4일아침 방송뉴스를 듣고 아들의조난소식을 처음알았다는 崔成權군의 아버지崔世桓씨(55)는 『산을그렇게 좋아하더니만 끝내 산에서죽어버렸구나』면서 목이메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金周鎰군(29·은행원·道峰區雙門洞217의88)이 입원한 東國병원 중환자실에는 金씨의 아버지 金柏年씨(55·사업)등 가족3명이 간호하고있었다.

【하이포더미어】 하이포더미아(Hypothermia)란 원래뜻은 심장등의수술을 시작할때 체온을낮추는 「체온저하」를 가리키나 등산용어로서는 돌풍이나 눈비등에 피부가 장기적으로 노출돼 체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체온이 30도이하로 떨어지면 경련이 일고 혈색이 창백해지면서 근육이 굳어지고 맥박도 불규칙, 의식이 희미해진다.

이때는 휴식·보온을 취하게해 체온을 회복시켜주어야하는데 계속 방치, 26도이하로 떨어지면 동사하고만다.

海上에 폭풍주의보

3천여척 한때대피

【地方綜】 3일하오 남해해상을 비롯 서해남부및 동해남부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3천여척의 어선이 항·포구에 피항하고 연안 여객선이 발이 묶였다가 4일상오부터 정상화됐다.

부산 연안여객 터미널에는 3일 濟州행 전천후 여객선점보 카페리호(3천7백톤)를 제외한 忠武—長承浦고현—麗水행 엔젤호, 코스모스호, 에어페리호등 연안여객선 7척이 출항을 하지못해 6백여 승객이 육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1천2백여척의 소형어선들이 浦項등 인근 항·포구에 대피하고있다.

또 지난1일밤부터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효중인 울릉도道洞항등 각 항·포구에는 어선 5백여척이 대피했으며 浦項과 울릉도간을 운항하는 한일호는 道洞항에, 청룡호는 浦項항에서 출항이금지돼 주민과 관광객등 4백여명이 지난2일부터 발이 묶였었다.

山…

北漢山 白雲산장서 20년 金金子씨

12년전의 그 惡夢 다시 보다니…

산악인들은 산을 무조건 좋아하지만 산은 산악인들을 항상 따뜻하게만 응대해주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산을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는 「遭難」이란 차가운 보상을 내린다.

북한산 白雲산장의 주인 李水九씨(52)의 부인 金金子씨(43·사진)는 3일밤새 仁壽峰에서 조난당한 대학생들을구하고 구조대원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산을 오르내리며 누구를 원망할것인가를 여러번 생각했다. 산장생활 20년동안 산사고가 날때마다 이같은 생각을 했지만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지 않을수 없었다.

3일은 날씨가 잔뜩 찌푸렸다. 金씨는 仁壽峰산장부근에 캠프를 친 成大생 14명을 떠나보낼때까지만 해도 날씨걱정을 안했다. 그러나 상오10시30분께부터 눈발이 휘날림에 따라 암벽에 매달렸을 학생들이 생각나고, 얼지 71년11월 仁壽峰암벽에서 7명의 젊은이가 꽃다운 나이에 숨져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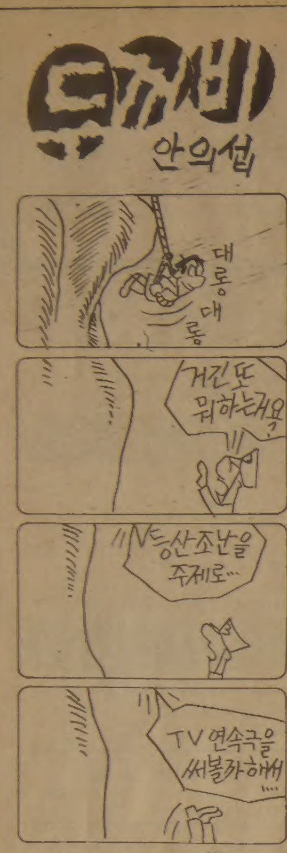
23살에, 3대를 이어오는 산장주인의 아내로 시집와 20년간을 산에서 산 金씨의 예감은 하오7시께 불행하게 적중했다.

조난사고는 시동생인 李卿九씨(42)가 하오3시께 산악회와 파출소에 처음 알렸다. 딴때같으면 남편이 비호처럼 산길을 달렸겠지만 산에서 허리를 다쳐 어쩔수 없었다.

구조활동이 시작되고 대학생이 구조돼 내려옴에 따라 하룻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백운암에 붙들리러 와있던 5명의 부인들과 함께 팔다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이 회색빛으로 언 대학생들의 팔다리를 주물러 피를 통하게 하고 미음을 떠먹이기도 했다. 또 밤새워 고생하는 구조대원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반찬도 준비했다. 그러나 사망자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 마음이 쓰렸다. 새벽에 떠나던 그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4일 상오 모든구조활동이 끝나고 뒤처리를 하면서도 「다시는 이런모습을 보지 말아야 하진를 되뇌며 마음속깊이 우러나온는한숨을 쉬었다. 『산아…』

【蘇熙濬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종교서관

개업 4주년 기념세일안내

할렐루야!

개업 4주년을 맞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과 여러분, 그리고 교민들께 그동안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애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저희 서점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문서복음사업에 정진하려고 다짐하오며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승리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Sale 기간 : 4월1일~30일

★품목 : 성화, 성가테입, 설교테입,
성경, 성경주석, 기독교서적,
소설, 전집류, 사전

◆설교테입◆
김남수목사　박조준목사
김중기목사　박희민목사
김의환목사　조창환목사
김창인목사　홍순관목사
김형태목사　홍반식목사
김홍도목사　이상훈목사
강달희목사　임택진목사
고원용목사　한경직목사
신예철목사　한기원목사
표지현전도사　한진관목사
김형석교수　최복규목사
이인수집사　최자실목사
안이숙선생

◆조용기목사 강해집테입◆
다니엘서 강해 8개
요한계시록 강해 10개
주기도문 강해 6개
팔복(산상보훈) 강해 3개
빌립보서 강해 8개
에베소서 강해 8개
갈라디아서 강해 8개
히브리서 강해 12개
고린도전서 강해 20개
로마서 강해 18개
목회세미나 6개
구역장세미나
설교테입 수백종

◆영어설교테입◆
조용기목사　굳데일목사
김중기목사　안이숙선생
로버트 슐러목사　김 윅스 영어설교

◆기타◆
곽규석장로간증
허림집사간증
이동원목사 새생활세미나
할렐루야 아줌마(최자실목사 목회여화)
천로역정강화(이성봉목사)
성경낭독
영어회화
각종성가
김 윅스 간증
요한계시록 해설드라마

종교서관

714 Bloor St. W.
〈아리랑 하우스옆〉
☎ : 535—1920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부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일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중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22-2643

가정살림 도와주실분 구함.
전화 : 663-1941 Mr. 서

유경험자 주말헬퍼(토·일요일) 구함.
Mac's Milk. 아침 10시~저녁 10시까지
전화 : 421-1089(Eglinton & Laird Dr.)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10개월된 애기·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1212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4-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꽃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485-9419

화장품 세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외판원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 1-476-3109(Keswick) Mr. 신

주방에서 일하실분 1명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2727

룸 메이트 구함 (여자분 환영)
전화: 438-1528 Mrs. 김

---

2 Bed Rm. 아파트에 룸메이트 구함.
학생 또는 직장인 원함. 스카보로 지역. 월: $100
전화 : 266-6064 (오전중)

Dishwasher 구함.
오전 11:30~오후2:30, 월-금요일
전화: 421-6016. (오후 2시반 이후)

Video Movie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영어와 한국어 잘 하시는 분. (Warden & Sheppard 지역)
전화: (B)494-7830. (R)925-1331(밤)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 (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충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월수입 : $6,900
전화 : 1-389-7755 (해밀톤) Mr. 차

일본음식점 매매.(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바겐. 가격이 다시 내렸음. 좋은 장소. 좋은 리스. 46 Seats. 술 라이선스. Bar 카운터. 전화 : 221-1621. 826-7676 메니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몬트리올에 위치한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000 권리금 : $40,000+스탁(Stock)
1주 6일 시간: 9a.m.~9p.m.

주소 : 8356 St.Laurent Blvd., Montreal H2P 2N3
전화 : (514) 381-2108 Mr. 이재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 포함)
전화 : 547-0841(해밀톤) Mrs. 리

Dodge 밴트럭. 1981년 6기통. 27,000Km
아스킹 : $5,500
전화 : 622-2643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선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썹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다운타운 Fast Food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아스킹 $39,000. 전화 : 593-8967. 826-3450
Steven Do. P. Ho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2층 아파트딸린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먼트요함.
전화 : 1-727-6665 (Aurora)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1년반+5년옵션
아스킹 $70,000+스탁. 전화 : 781-8968(오전9시-12시)

해밀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5,000+스탁
3만5천 다운-몰게지. 전화 : 1-388-4825

Bakery-버라이어티 Plaza
Eglinton-HWY 427. $100,000다운. 완전장비갖춤.
9,000Sq. fit. 전화: 787-1626. 저녁781-3593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 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Bloor 한인상가에 있는 가게를 세놓습니다.
전화 : 255-2161 Mr. 김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층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

4 Bed Rm 하우스 렌트
스카보로 동쪽끝. 6월말에 입주 가능
전화 : 282-8066 Mr 리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 (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향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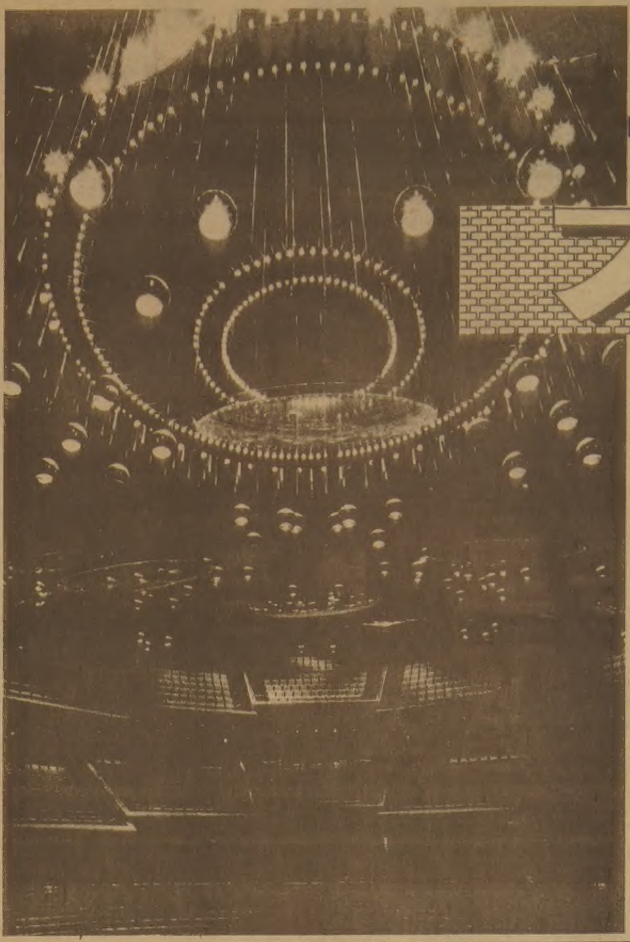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교향악과 가곡의 밤

세계적인 음악의 전당
「로이톰슨」 홀에서 펼쳐질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주최의
교향악과 가곡의 밤에
교포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지휘자 김승순(○안)

일시 : 1983년 4월24일(일요일) 저녁8시
장소 : Roy Thomson Hall

✱티켓종류 A석 $15, B석$12
C석 $10, D석$ 8

한국성악계의 제1인자 엄정행 교수와 전지현 교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교포 성악가들 출연!!

◇엄정행(테너)

◇전지현(쏘프라노)

◇이주연(쏘프라노)

◇신경욱(바리톤)

◇티켓 판매처와 판매자

민중신문사 (537-3473)
각 한인식품점
로이톰슨홀 매표구및 지점 매표소
윤 여 화(621-0323)
윤 호 섭(881-8211)
강 기 옹(828-9728)
고 순 복(625-9048)
김 문 고(889-8290)
김 승 순(226-3494)
김 창 범(536-2155)
김 태 진(244-5124)
오 현 구(270-3118)
유 정 자(429-7067)
윤 순 희(449-5257)
이 상 수(242-5850)
천 중 환(826-6664)
한 상 훈(270-7465)
함 병 섭(537-6685)
런던지구
김택수(B)438-6644
(R)471-1293

주 최 : 토론토 한인 교향악단
후 원 : 민중신문사

◆입장은 당일 8시10분 전까지 완료함.
◆연소자(만7세 이하)는 입장이 금지됨.
◆공연중 사진촬영과 녹음은 엄금함.
◆복장은 정장을 요망 합니다.